

2014학 년 도

석사학위논문

『子平眞詮』 명리이론 연구

지도교수 : 조 규 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박 병 수

『子平眞詮』 명리이론 연구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2월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박 병 수

박 병 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 사 위 원 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14년 12월 일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i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3. 선행 연구	5
II. 『자평진전』의 문헌적 고찰	8
1. 『자평진전』의 시대적 배경	8
2. 『자평진전』 저자 연구	11
III. 『자평진전』 구성 분석	13
1. 십간과 십이지지의 개요	13
2. 용신의 뜻	16
3. 격의 분석, 연구	19
IV. 『자평진전』 명리이론 분석	21
1. 정격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	21
2. 잡격과 그 외의 격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	68
3. 용신과 상신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	83
V. 결론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7

표 목 차

<표 1>	『자평진전』 정관격의 성패	27
<표 2>	『자평진전』 편관격의 성패	33
<표 3>	『자평진전』 재격의 성패	43
<표 4>	『자평진전』 인수격의 성패	50
<표 5>	『자평진전』 식신격의 성패	56
<표 6>	『자평진전』 상관격의 성패	61
<표 7>	『자평진전』 양인격의 성패	67
<표 8>	『자평진전』 월겁격의 성패	73
<표 9>	『자평진전』 잡기격의 성패	81

논 문 개 요

석사학위 논문

『子平眞詮』 명리이론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박 병 수

사주명리는 인간의 사후 세계가 아니라 현실의 삶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운명 예측학이다. 이것은 사주명리가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자평진전』 명리는 명리 해석에 있어 논리정연한 간명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주의 중요사안인 용신의 문제와 용신의 취용과 용신을 보필하는 상신(相神)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예문을 통해 명쾌하게 사주를 일위주의 풀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평진전』 사주명리(四柱命理) 근본 논리와 용신, 월령론(月令論)과 격국론(格局論)의 개념을 연구를 하였다. 『자평진전』의 팔정격의 격국에 대해서 예시명조를 대입하였고, 대운을 통해 예문에 대한 설명하면서, 『자평진전』의 명리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해 보았다.

자평명리는 월령 중심의 이론이다. 월령 중심의 이론에는 격국론이 있고 조후론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자평명리와 관련이 있는 이론들이다. 그리고 오늘날 명리학에서는 이 같은 자평명리 이론을 토대로 좀 더 넓고 깊게 발전한 다양한 명리 이론들이 사주에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평학의 특징을 보면, 첫째, 일간 중심의 이론으로 되어 있다. 둘째, 생극제화를 강조했다. 셋째 월령이 용신이며 격이다. 정관, 정인, 정재, 식신을 좋게 보고 편관, 상관, 겁재, 양인을 흉신으로 구별했으며 극하고 합하는 제복을 설명했다. 이와 같은 자평명리학의 특징을 잘 살린 것이 『자평진전』이다.

『자평진전』은 격국, 용신, 대운의 삼요소를 모두 채택함으로써 현대 명리학의 간명체계를 정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한 『자평진전』은 기존에 전해 내려오던 송이전 명리이론에서 신살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잡격을 정리하여 정격국(正格局)의 이론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자평진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자평진전평주』로 인해서이다. 일부 명리학계에서는 『자평진전』을 과소평가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자평진전』을 분석해 본 결과,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면 명리 이론으로서 장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떤 고전 명리서들도 완벽한 것은 없다. 저자가 자신의 고견을 문장으로 모두 표현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독자가 저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년주 중심의 사주 체계보다, 일주 중심의 사주 체계가 한 개인의 운명을 간명하는 데는 더욱 발전된 이론이다. 따라서 자평명리학의 가치는 인정될 수 있으며, 자평명리학의 여러 문헌 중에서 『자평진전』은 자평명리학의 기능적인 면을 잘 살려내, 실용적인 차원에서 현대 명리학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한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했지만, 오히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미래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지면서, 운명을 예측하는 각종 술수학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운명을 예측하는 술수학 중에서도 사주명리학이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주명리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명을 음양오행 이론을 통해 헤아리고 파악하는 이론이다. 사주명리는 인간의 사후 세계가 아니라 현실을 대상으로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사주명리가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을 알게 해 준다.¹⁾

동양철학에서 물질의 개념은 오행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오행도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²⁾ 인간세계의 모든 현상을 오행으로부터 구성되어 있고 기(氣) 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³⁾ 사주는 한 생명의 탄생

1) 조규문, 『天綱 袁守成의 命理思想에 대한 研究』, 대전대 박사학위 논문, 2009, p.2.

2) 하재춘, 『동양철학과 현대물리학의 연관성 고찰』,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11.

3)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사, 2003, p.22.

에서 비롯된 연월일시로 그 시점의 천명(天命)과 천성(天性)을 품고 있다.⁴⁾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은 인간이 태어난 날짜의 년·월·일·시(年月日時)를 60갑자(六十甲子)로 표기하고 간지(干支)와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의 법칙에 따라, 인간의 운명을 예측하는 술수 분야의 학문이다.

음양오행설만큼 천지만물의 제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을 것이다. 현상과 변화가 아무리 복잡하고 미묘하다 해도 음양오행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⁵⁾ 명리학의 근간이 된 음양오행론은 명리학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역학에 선재하여,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에 통용된 보편적 이론이다.⁶⁾ 그러므로 명리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을 적절히 활용하여 미래를 슬기롭게 대처해나가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

사주명리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하는 것은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현재까지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생년, 생월, 생일, 생시로 사람의 운명을 판단하는 방식은, 중국의 唐대 초기에 원천강(袁天綱)⁷⁾의 『원천강오성삼명지남(袁天綱五星三命指南)』이라는 책에서 처음을 살펴볼 수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를 사주명리학의 창시자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일간(日干) 위주의 사주명리방법은 오대(五代) 말기 송대(宋代) 초기의 인물인 서자평(徐子平)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자평진전』은 일위주(日爲主)에서는 일간(日干)을 자신이라 한다. 일위주(日爲主)가 개인의 命이 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이다.⁸⁾

『삼명통회』에서는 사주명리학은 년주(年主)의 천간(天干)을 록(錄)이라 하

4) 조옥연, 『명리학의 정체성에 대한 소고』,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3, p.2.

5) 한영애, 『十干十二支의由來와原理에관한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0, p.11.

6) 沈揆喆, 『命理學의 淵源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學大學院哲學博士學位論文, 2002, 62쪽.

7) 조규문은 원천강에 대해서 581년 전후에 태어나 647년 이전에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 앞의 논문, p.17.

8) 김동언, 『四柱命理를 12律呂에 適用하여 現代音律로 의 解釋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p.12.

고, 년주의 지지를 명(命)이라 하며, 년주의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신(身)이라 하여 록명신(錄命神)의 삼명학(三命學)이었다. 그리고 삼명과 입태(入胎) 월, 일, 시를 분석해서 명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이후 서자평이 납음오행과 입태 월을 무시하고 일간(日干)을 주체로 월령(月令)을 중시하는 새로운 운명 예측학이 태동했는데, 이것을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이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주명리학은 년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삼명학’과 일주 중심으로 해석하는 ‘자평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 사주 풀이법이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자평학은 제강 즉 월령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다른 명리학의 기본개념과는 몇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자평명리학을 새롭게 해석한 『자평진전(子平眞詮)』의 명리학은 논리정연한 간명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사주이론에서 중요한 용신(用神)의 문제와 용신의 취용과 용신을 보필하는 상신(相神)의 문제를 정리, 제시하고 있다. 비록 예문은 부족하나 분석적인 일(日) 위주의 풀이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평진전』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편이었다. 이에 본 논문은 『자평진전』의 올바른 인식과 분석을 통해 명리학에 일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인류사회에서 점복(占卜)의 기원은 정착과 군집 생활을 한 씨족공동체 사회부터, 하늘의 뜻을 파악하고 인간의 건강과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주술을 활용하던 때부터이다. 이러한 점복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점성술, 주역점, 명리, 풍수지

리, 관상학 등의 학문적 이론을 갖춘 점술과 신을 받아 점술 행위를 하는 무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⁹⁾

사주명리(四柱命理)에서 다루는 분야는 기본적으로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과 함께 천간(天干), 지지(地支) 등 매우 넓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자평진전(子平眞詮)』을 기준으로 하여, 『자평진전』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구성 분석 및 명리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평진전』 사주명리의 근본인 용신체계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송대(宋代)의 서대승(徐大升)이 서자평의 이론을 계승한 명리학 서적 『연해자평(淵海子平)』, 명대(明代)의 만민영(萬民英)의 사주명리학 서적인 『삼명통회(三命通會)』, 송대(宋代)에서 청초(淸初)에 진소암(陳素庵)의 명리학서로 『명리약언(命理約言)』 등과 함께 청나라 때에 심효첨(沈孝瞻)이 저술하고 서락오(徐樂吾)가 평주한 『자평진전평주(子平眞詮平柱)』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 밖에 자평학과 관련된 여러 자료를 병행하여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진행 방법은, 2장에서는 『자평진전』의 문헌적 고찰을 하면서 자평명리학이 나오게 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저자에 대해 고찰하였다. 자평명리학은 『연해자평』, 『자평진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고전 명리서들처럼 문헌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또한 저자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고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본 논문에서도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3장에서는 『자평진전』의 구성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자평진전』의 구성은 십간(十干)과 십이지지(十二地支)의 개요, 용신의 뜻, 격의 분석, 연구로 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십간과 십이지지의 개요, 용신의 뜻, 격을 중심으로 구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자평진전』의 가장 핵심인 용신론과 다른 육신과의 생극제화 논리관계의 원리를 파악하였다. 생극제화의 사주간명법, 그리고 유정과 무정, 일간의 무력과 유력, 운에 따른 성패와 구응을 알아보았다.

9) 박기영, 『『麻衣相法』과 『柳莊相法』의氣色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9.

4장에서는 『자평진전』 명리학의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월령론(月令論)의 격국론(格局論)에 대한 개념분석과 함께, 구체적으로 격국을 분석하기 위해 이에 대한 예제를 인용하고 설명을 하였다. 정격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에서 정8격인 정관격, 정재격, 편재격, 정인격, 편인격, 식신격, 상관격, 편관격의 개념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격국의 구성인 4길신과 4흉신의 순용과 역용을 알아보고 성격이 패격으로, 패격이 성격으로 됨을 알아보았다. 잡격에서는 잡격과 잡기격 및 겹격을 알아보았으며, 잡격에서는 외격의 용신 취용법과 그 격에 대한 이론을 분석 하였다.

5장에서는 『자평진전』의 명리이론의 장점과 함께 문제점을 기술하였고 현대명리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3. 선행 연구

자평학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학위논문으로 나왔는데, 크게 『연해자평(淵海子平)』¹⁰⁾과 『자평진전(子平眞詮)』¹¹⁾으로 나뉜다. 그 중 본 논문의 주제와 직접 연결이 되는 『자평진전(子平眞詮)』에 관한 선행연구 중에서

10) 『연해자평(淵海子平)』에 관한 논문으로는, 송부종의 『『淵海子平』 翻譯 研究』(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05), 그리고 김효중의 「『子平三命通變淵源』의 격국이론 연구」(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논문, 2014)가 있다.

11) 『자평진전(子平眞詮)』에 관한 논문으로는, 김장숙의 『命理學의 格局論에 관한 研究 - 『子平眞詮』의 透干會支論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논문, 2012), 진정훈의 『『子平眞詮』의 相神에 관한 研究』(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장영미의 『『子平眞詮』의 刑・沖・會・合論에 關한 研究』(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14) 등이 있다.

몇 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효중의 『『子平三命通變淵源』의 격국이론 연구』는 명리학의 이론은 ‘다양하나 공통적으로 생일의 천간을 분석의 주체로 하며, 여타의 천간과 지지를 비교하여 그 관계를 살핀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월령을 중시하고 월령에서 비롯된 각종 명리적 부호들이 일정한 구성과 일관된 조합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월령의 구성과 조합체계를 중심으로 세밀한 분석틀과 설명틀을 갖춘 이론이 명리학의 격국론이다.’¹²⁾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평진전』은 신살과 외격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자평진전』에서는 투출에 중심을 두다보니 절기 사령을 고려한 부분은 적고 단지 여기, 중기, 정기 등의 투출에만 집중하였다. 그러므로 격국의 이론을 정립하여 발전적인 명리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子平三命通變淵源』부터 내려온 격국론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정훈의 『『子平眞詮』의 相神에 관한 研究』는, 월령(月令)에서 용신(用神)을 취하는 『자평진전』의 논리와 함께 용신에 따르는 상신(相神)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또한 『자평진전』의 용신 취용법(取用法)과 이를 보좌하는 상신이 무엇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리고 용신을 보필하고 상신과 구응(救應)하는 경우를 조명하고, 상신이 운에 의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것인지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상신은 사주를 성격(成格)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결론적으로 상신은 용신에 따라 정해지는 기운이면서 용신을 보좌하는 핵심적인 기운인 것이다. 용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상신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용신 및 운의 적용법을 인지시키며 논리 정연하게 사주 간명법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없던 논리 전개방식이라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장영미의 『『子平眞詮』의 刑·沖·會·合論에 關한 研究』는, 『자평진전』의 형(刑)·충(沖)·회(會)·합(合)에 대해 분석하고 실제 적용법에 대해

12) 김효중, 『『子平三命通變淵源』의 격국이론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 p.3.

고찰하고 있다. 먼저 형(刑)·충(沖)·회(會)·합(合)의 작용을 분석하면서, 형충은 회합을 깨고, 회합은 형충을 해소하며, 형충으로 다른 형충을 해소하고, 하나의 오행은 같은 두 개의 오행을 형충할 수 있다는 특징을 말하고 있다. 다음으로 형·충·회·합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자평진전』의 원문 인용과 함께 실제 사례를 들면서 원국(原局)에서의 적용과 행운(行運)에서의 적용으로 나누고, 길한 작용과 흉한 작용으로 나타남을 구분하여 간명(看命)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형·충·회·합의 적용상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위치의 문제가 있다는 점과 하나의 오행과 두 가지 오행 간의 형충 문제가 있다는 점과 형충이 다른 형충을 해소하는 문제가 있어 간명의 과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다소 간략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에서 말한 여러 선행연구의 장점을 찾아 『자평진전』의 연구에 참고하였다.

II. 『자평진전』의 문헌적 고찰

1. 『자평진전』의 시대적 배경

자평학은 오대말(五代末)에서 송대초(宋代初)의 혼란기에 나온 명리학이다. 혼란의 전초는 이미 당대의 현종(玄宗)이 양귀비(楊貴妃)를 총애하고 환관 고력사(高力士)를 가까이 하면서, 조정의 모든 정사를 재상인 이임보(李林甫)와 후임인 양귀비의 사촌 오빠인 양국충(楊國忠)에게 일임하여 정치는 하루가 다르게 부패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겸병이 가속화되면서 빈부 차이가 현저하게 벌어졌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방면에서 쇠퇴일로로 걷기 시작하였다. 결국 통치 집단이 썩을 대로 썩어 부패하면서 ‘안사(安史)의 난’¹³⁾이 발발할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⁴⁾

755년부터 763년에 걸쳐 일어난 안사의 난으로 인해 당나라 왕조는 번영에서 쇠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 전쟁을 거치면서 특히 황화 중하류 유역의 백성들은 전에 없던 환란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북방 경제는 크게 파괴되었다. 이로

13) ‘안사(安史)의 난’이란, 당나라 왕조의 지방할거 세력이 중앙 정권에 대해 일으킨 첫 번째 반란을 말한다. 주동자인 안록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의 이름을 취하여 ‘안사의 난’이라 부르게 되었다.

14) 쉰테 지음/ 이화진 옮김, 『중국사 산책』, 일빛, 2011, pp.296~298.

인해 사회 모순은 더욱 격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되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봉건사회는 최고의 전성기에서 쇠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중국에서 변방을 평정하기 위하여 군대를 주둔시키던 번진(藩鎮)에서 전국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 ‘번(藩)’은 호위대, ‘진(鎭)’은 군사거점 지역인 군진(軍鎭)을 가리킨다. 봉건 왕조에서는 군진을 설치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세력이 오히려 중앙정권을 위협하는 땅을 나누어 차지하는 할거세력을 형성하곤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당나라 말엽인 875년에서 884년에 걸쳐 발생한 ‘황소(黃巢)의 난’¹⁵⁾은 당나라 왕조가 붕괴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당나라 왕조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번진과 할거세력이 약화되었으며 중앙과 번진, 번진과 번진 사이의 세력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¹⁶⁾

결국 907년에 이르러 주전충(朱全忠)¹⁷⁾에 의해 당나라는 멸망하고 새로운 왕조인 후량(後梁) 정권이 탄생했으며, 번진과 할거의 국면이 오대(五代)의 분열 시대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오대란 당(唐)이 망한 다음에 송(宋)이 건국되어 재통일될 때까지의 54년(907-960) 동안을 말한다. 오대는 대체로 회하(淮河) 이북과 황하(黃河) 유역 일대에 흥망성쇠 하였던 후양(後梁), 후진(後晉), 후당(後唐), 후한(後漢), 후주(後周)의 5개 왕조를 말한다. 오대 시대의 정치는 후당을 제외하고는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모두 번진의 체제였고, 그 중심은 절도사(節度使)를 중심으로 구성된 무력집단이었다. 정국은 안정되지 못하였고 중앙에서는 지방의 할거세력을 제압 통제하지 못하였으며, 또 지방의 할거세력도 끊임없는 내분과 충돌 속에 있었으므로 변란이 계속해서 일어났다.¹⁸⁾

청대(清代)에 나온 『자평팔자사언집腋(子平八字四言集腋)』에는 명리학의 기

15) 산둥성 출신의 소금장수 황소(黃巢)가 일으킨 난을 말한다. 황소는 874년에 일어난 왕선지(王仙芝)의 반란에 호응하여 군사를 일으킨 5년 후 장안(長安)에 입성하여 국호를 대제(大齊), 연호를 금통(金統)이라 부르고 스스로 황위에 올랐다.

16) 쉰테 지음/ 이화진 옮김, 앞의 책, pp.306~326.

17) 당나라 말기의 번진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다. 황소의 난을 평정한 공으로 각지의 절도사를 겸하는 등 화북 제일의 실력자가 되어 당나라를 무너뜨렸다.

18) 이춘식,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1, pp.247~249.

원이 주(周)나라의 ‘낙록자(洛錄子)’와 ‘귀곡자(鬼谷子)’부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나라 초로 추정되는 원천강(袁天綱)이다.

그 후 당나라 말기에 이허중(李虛中)이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를 편찬하여 사주학의 중요한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허중은 바로 ‘안사의 난’이 끝날 무렵인 761년에 태어나 번진과 할거의 혼란기인 헌종(憲宗) 때 전중(殿中) 시어사(侍御使)까지 한 인물이다. 그가 어떻게 벼슬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벼슬에서 물러났는지에 대한 상세한 사실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사회적 혼란기에 미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의 명리학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자평명리학이 나온 시기는 이허중의 명리서가 나온 시기보다 더욱 혼란이 심할 때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기에는 무엇보다 민중들의 생활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 전란의 연속 속에서 현재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었고 미래는 불확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민중들은 자연스럽게 운명 예측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때 출현한 것이 ‘자평명리학’이었던 것이다. 이허중은 조정관리까지 지낸 인물로서 가문을 중요시했을 것이며, 이것이 년주(年柱) 중심의 명리학을 정립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자평명리학은 사회적 혼란에 시달렸던 민중들의 개인 생활에 더욱 중요성을 알고 일주(日柱) 중심의 명리학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2. 『자평진전』 저자 연구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평학(子平學)은 오나라 말에서 송나라 초에 인물로 추정되는 서자평(徐子平)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는 서자평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또한 서자평이 살던 기간에 대해 오대설(五代說)과 송대설(宋代說)로 나뉘어져 있다. 두 가지 설로 나뉘어져 있지만 오대와 송대가 바로 이어져 있어 서자평은 오대와 송대를 거쳐서 산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익(李穡)은 『성호사설』에서 서자평을 서거이(徐居易)로 보면서 오대 사람이라고 주장한다.¹⁹⁾ 그리고 서자평에 대해 『중국인명대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혹은 말하기를 오대 시기 사람이라 한다. 별에 관한 학문에 정통하였고 낙록자의 『삼명소식부』를 주석하여 후세에 술사의 조종이 되었다. 이제 8자로 추명하는 것을 이르니 자평이 되었다. 그로 인하여 그 이름이 붙었다.²⁰⁾

서자평은 그동안 전해 내려오던 명리간법(命理看法)인 년주의 체계가 아닌 일위주(日爲主)의 새로운 사주풀이 방법을 창안했다. 후에 자신의 호를 따서 기존의 전해오던 삼명학(三命學)과 구분하여 자평학(子平學)이라 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명리학에서는 삼명학을 년위주 명리학이라 하고, 자평학을 일위주 명리학이라 한다. 서자평은 낙록자의 『낙록자삼명소식부』와 곽박의 『옥조신응진

19) 이익, 『성호사설』 권9 「인사문」, “성명(星命)을 말한 것으로 자평(子平)의 글이 있는데, 그 등속 또한 혼하다. 서자평(徐子平)이란 자가 있는데, 이름은 거이(居易)요 오대(五代) 사람이다.”

20) 咸勵齋, 『중국인명대사전』, 1993, p.776.

경』에 주석을 달았고, 약 300년 후 서대승이 지은 『연해(淵海)』와 당금지(唐錦池)가 합해져 자평평리학의 기본이 된 『연해자평(淵海子平)』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학계의 일부에서는 『낙죽자삼명소식부』도 『옥조신응진경』은 위서라고 말하기도 한다.

『자평진전』은 청나라 건륭(乾隆) 4년(1739년) 유학자로서 진사(進士)에 급제한 심효침(沈孝瞻)이 자평 명리학을 바탕으로 저술한 명리서이다. 심효침의 본명은 택번(澤燾)이며 호는 산음(山陰)이다. 1880년에 쓰인 후서(後序)에 의하면 “호운보(胡雲甫)가 심효침의 39편과 함께 본래의 필사본 6편을 합하여 전후 문장을 서로 맞게 나누고 바꿔서 『자평진전』 45편을 발행하였다.”²¹⁾라고 하고 있다. 1895년에는 이영손(李泳蓀)이 『자평진전』을 발간하면서 쓴 발문(跋文)에 “산음 심효침 선생이 쓴 45편은 구구절절이 명(命)을 말하는 법의 지극한 요점이다.”²²⁾라고 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936년에 서락오(徐樂吾)가 『자평진전』에 평주(評註)를 해서 『자평진전평주(子平眞詮評註)』를 발행함으로써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²³⁾ 여기에는 1895년 이영손이 발간한 『자평진전』에 들어있던 조전여(趙展如)의 서문과 이영손의 발문, 그리고 1880년에 쓰인 후서가 모두 빠졌으며, 호운보의 원서(原序)만 실려 있다. 또한 서락오는 『자평진전』에 평주를 하면서 여러 장을 임의로 첨부하여 54장으로 만들었다.

『자평진전평주』에 조전여의 서문과 이영손의 발문, 그리고 후서가 모두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자평진전』에 평주를 하면서 서락오 자신의 견해가 상당 부분 첨가 되어 오히려, 『자평진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심효침이 저술한 원문 『자평진전』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도 서락오가 『자평진전』에 평주한 『자평진평주』를 가지고 연구하였다는 것이 한계이다.

21) 沈孝瞻 著, 李泳蓀 刊, 『子平眞詮評註』(台中: 瑞成書局, 1995), 「後序」참조.

22) 沈孝瞻 著, 李泳蓀 刊, 앞의 책, 「跋」참조.

23) 沈孝瞻原著, 徐樂吾評註, 『子平眞詮評註』, 「自序」참조.

Ⅲ. 『자평진전』 구성 분석

『자평진전』의 구성을 보면 십간과 십이지지를 다루었고, 월령과 용신의 성패, 용신의 변화, 용신의 순잡, 용신 격국의 고저를 기술하였다. 용신은 격국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주의 형태나 쓸 수 있는 기운을 말한다. 그리고 월지를 지칭하기도 하며, 용신, 상신, 희신을 통칭하는 말이다. 격을 구성하는 격국론에서는 각 격의 운을 취하는 경우와 정관격, 재격, 인수격, 식신격 상관격, 편관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잡격과 잡기격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십간과 십이지지의 개요

음양론의 체계에서 오행이 생기는데, 음양 변화의 과정에서 시간과 공간이 생기며 사시(四時)가 생겨나며 오행이 생겨난다. 천지에는 하나의 기(氣)가 있고, 이것을 태극이라 한다. 역에서 태극은 음양이며 음양은 곧 진리라 했다. 음양의 원리를 떠난 존재는 있을 수 없으며, 음과 양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 자체가 진리이다.²⁴⁾ 하나의 기가 동(動)과 정(靜)이 있어서 음양(陰陽)으로 나뉘고, 음양

이 있고 나서 오행이 생긴다. 오행은 木, 火, 土, 金, 水이다. 음이 강해지면 양이 소모되고 약해지며 음이 소모되면 양이 솟구쳐 오른다.²⁵⁾ 오행이 하늘에서 음양으로 나뉜 것이 천간이라고 했고, 땅에서 음양으로 나뉜 것이 지지라고 한다. 사계절의 운행은 오행이 서로 생하기도 하고 극을 하면서 진행된다. 생이란 木이 火를 생하고, 火가 土를 생하고, 土가 金을 생하고, 金이 水를 생하고, 水가 다시 木을 생하는 것을 말한다. 극이란 木이 土를 극하고, 土가 水를 극하고, 水가 火를 극하고, 火가 金을 극하고, 金이 木을 극하여 생을 절제하고 그치게 함으로써 생하여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고 거두어 들인다. 오행을 사계절로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오행의 생극제화에서는 오행이 지나치게 생을 하거나 극을 하여 좋지 않게 된 것을 설명한다.

여기서 십간과 십이지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다루지 않고 본 논문의 특성에 맞추어 『자평진전평주』에 나와 있는 간지를 간략히 다루고 넘어 가겠다.

천간은 12지지의 월을 운행하면서 생왕묘절을 순환하게 되는 것으로 음과 양이 출생하는 곳에서 음양이 서로 교차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만물은 생긴 모양으로서 음의 성질과 양의 성질의 파악할 수 있다.²⁶⁾ 천간의 합(合)과 화(化)는 10천간의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형성된다. 甲己합에서 시작하니 변하여 土가 된다. 土는 金을 생하니 따라서 乙庚합하여 金으로 변하는 것이 그 다음의 순서가 된다. 金生水 하니 丙辛이 합하여 水로 변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고, 水生木이 되니 丁壬이 합하여 木으로 변한다. 그리고 木生火가 되므로 戊癸가 합하여 火로 변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된다. 이렇게 가장 먼저 土에서 시작하여 상생하는 순서에 따르는 것으로 자연의 이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천간이 합이 되는 듯해도 중간에 극하는 글자가 있으면 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합이불합(合而不合)이라 하며 합하는 글자 사이에 극을 하는 글자가 있으면 넘어가지 못해 합을 못한다.²⁷⁾ 예를 들어 甲木 일간에

24) 홍연표 편저, 『사주와 인생』,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0, p.10.

25) 이성환, 김기현 공저, 주역의 과학과 도, 정신세계사, 2002, p.94.

26) 박정화, 『춘하추동과 인생』,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4, p.11.

27)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60, 참고.

월천간에 식신 丙火가 있고 년천간에 칠살 庚金이 있고 시천간에 겁재 乙木이 있는 사주에서, 칠살 庚金이 식신 丙火로 인해 시천간에 겁재 乙木과 합을 하지 못한다. 다음은 합이불합이 되는 예시명조이다.

합이불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乙	甲	丙	庚
巳	辰	申	子

『자평진전평주』에서는 십간을 논했으며 지지에 관한 내용은 합과 충이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나 해설이 없다. 지지에는 형충회합이 있는데, 사주에 형충이 있다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용신이나 희신이 충을 당하면 나쁘지만, 기신이 충을 당하면 성격이 되어 좋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²⁸⁾

『오행대의』를 보면 천간과 지지는 천간은 10개로 하늘의 모양을 본떠 둥글게 배포 하였으며, 지지는 12개로 땅의 모양을 상징하여 모나게 펼쳤다고 한다. 십간은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이며 12지지는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이다.²⁹⁾

28)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p.82~84, 참고.

29) 蕭吉 原著, 『五行大義』, 대유학당, 2008, p150. 참고.

2. 용신의 뜻

일천간 위주의 자평명리학은 용신에 대한 정의를 용사지신(用事之神)이라고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심효점은 용신을 격국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심효점은 용신과 격국이라는 용어를 혼용하였다. 서락오는 용신을 현대에 사용하는 용신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5가지 취용법을 설명하였다. 용신이라는 용어를 쓰며 용신의 개념상의 혼란이 많은데, 용신은 내가 추구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격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자평진전』은 서자평의 일위주 명리학의 원칙을 따르면서 『자평진전』만의 논리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용신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상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자평진전』 명리이론의 특성은 월령을 용신으로 취하는 월령용신론(月令用神論)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팔자의 격국은 오직 월령을 사주에 배합함에 있다고 하였다. 월령이 용신이 되며 월령을 사주에 배합함으로써 격국이 이루어지므로 월령이 용신도 되지만 격국의 의미가 된다. 결국 월령이 용신이며 월령이 격인데, 월령이 용신이므로 용신이 곧 격국이 되는 용신격국으로 이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자평진전』은 월령용신에 기초를 두고 용신론과 용신의 성패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격국이라는 뜻을 포함한다. 그래서 용신격국론이라고 한다. 현대적인 의미의 용신을 이 책에서는 일간의 용신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기 때문에 희신(喜神)이라고 하고 있다. 용신의 성패와 구응을 논하면서 격이 성립된 좋은 격은 성격, 격이 성립되지 않아 나쁜 격은 패격이 된다.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찾고 사주로 배합하면 성과 패가 있다.

격이 좋은 가운데 나쁘게 변한 경우로 흉신이 길신을 극할 때, 길신이 길신을 극할 때는 성중유패가 된다. 반대로 격이 나쁜데 좋게 변한 경우로 흉신이 흉신을 극할 때, 길신이 흉신을 극할 때는 패중유성이 된다. 또 성격이 되었지만 격

이 깨지고 패격이 되었으나 다시 격을 이루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연해자평』을 보면 십이지지의 지장간 구성요소와 월별 지장간 관장일수 월별 분야 이론으로 대표되는 명리학의 지장간 인원론 이론체계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일간을 기준으로 천간과 지장간을 적용하여 육친의 길흉과 격국을 논하는 자평명리학의 핵심적 이론의 구성 요소로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용신의 변화에서는 월령의 암장가운데 투간한 것을 용신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월령이 寅木이라면 甲木이 투간하지 않고 丙火가 투간한 경우라고 했다. 용신이 변화는 이유는 회합과 암장과 투간에서 결정된다. 또한 변화하여 선하게 된 경우와 변화하여 나쁘게 된 경우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두 개 이상 투간한 용신을 쓸 수 있는 점격을 설명하였는데, 辛金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甲木이 투간하고 丙火가 투간한 경우에 정관격이 점격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용신은 순잡이 있는데 용신의 변화가 있으면 좋고 나쁨을 구분하여야 한다. 순이란 좋은 것은 상호 득이 되게 하는 것, 예를 들어 辛金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甲木과 丙火가 함께 투간하면 재성과 관성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득이 된다. 잡(雜)은 상호 둘이 도모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 壬水일간이 未월에 태어났는데 乙木과 己土가 함께 투간하면 관성과 상관의 서로 극하고 도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상신과 용신은 임금에게 재상이 있는 것과 같으며 용신을 보좌해야 하는 것이 상신이다. 상신의 개념이나 회신의 개념은 비슷하다. 용신을 손상함이 일간을 손상함보다 나쁘고 상신을 손상함이 용신을 손상함 보다 나쁘다.

잡기격이 용신을 정할 때 辰戌丑未 사묘(四墓)는 지장간에 암장된 것이 많고 용신이 한 가지가 아니라서 잡기라고 한다. 투간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쓴다. 하나가 투간하면 하나를 쓰고 겹해서 투간하면 겹해서 쓴다. 천간에서 합이 되어 좋은 것은 유정한 것이고, 천간에서 합이 되어 나쁘게 된 것은 무정하게 되어 좋지 않다.

30) 신경수, 『당·송대 명리학 삼재론과 주체관점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48.

辰戌丑未의 고(庫)는 형과 충을 꺼리지 않으나 형과 충이 반드시 격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일간을 월지에 대조하면 생하고 극하는 변화가 사주마다 달라 격국이 나누어지게 된다. 월지가 4길신인 정관, 정재, 편재, 정인, 편인, 식신이면 좋은 용신이에 극하거나 합하면 안 된다. 월지가 4흉신인 칠살, 상관, 겁재, 양인이면 극하거나 합을 해야 한다. 순용할 것은 도와주고 생해주고 역용해야 할 것은 극하고 합해야 한다. 배합이 잘 되면 좋은 격이 된다.

사주를 볼 때, 용신이 무엇인지 살핀 후 극할 것인지, 합할 것인지, 순용할 것인지를 본다. 연월일시의 간지를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는지 살피면 사주의 좋고 나쁨이 드러난다. 이러한 개인의 출생 연월일시에 설정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사주에 의하여 예측할 수 있다.³¹⁾

『자평진전』에서는 월령과 용신의 중요성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간의 기가 약함과 강함 즉, 왕쇠의 중요함을 지적했다. 일간의 왕쇠도 사주팔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정리하였는데, 용신은 월령의 지장간(地藏干)³²⁾을 뜻한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일간의 강약을 따져서 용신을 취하는 억부법과는 구분된다. 월령 용신을 기준으로 4길신과 4흉신으로 정리하며 재와 인수는 정, 편을 가르치지 않고 길신으로 정하고, 사주의 용신을 길신과 흉신으로 구분하였으며, 길신과 흉신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운이 상신이다. 용신에 따른 길흉과 용신을 보좌하는 상신의 상태로 사주를 분석하고 명을 다시 대운과 세운에 대입하여 해석한다.

31) 정국용, 『현대 사주명리학』, 중문출판사, 대구, 2003, p.28.

32) 지장간(地藏干), 지지속에 천간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격의 분석, 연구

『자평진전』은 정관격, 재격, 인수격, 식신격, 편관격, 상관격, 양인격, 건록격, 월겁격, 잡격과 각 격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격은 지지 월령에서 월령 자체 본기나 지장간에 투간된 것을 격이라 했다. 그러면서 격과 용신의 운을 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정관은 가장 귀한 길신으로 재의 생을 받고 인수를 생한다. 재성과 인수를 둘 다 쓰지 못하면 인수를 쓰는 것보다 재를 쓰는 것이 좋다.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며 정관이 용신일 때, 식상을 만나거나 편관을 만나는 경우 또는 식신이나 상관을 만나면 정관격이 패격이 된다.

『자평진전』에서는 정관격 운이 되는 방법을 사주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이론이 정교하고 그 원칙의 융통성도 크다. 정관은 재와 인수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간의 기가 약할 때, 나를 돕는 운이 와야 하고 정관의 뿌리가 약하다면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한다. 또한 정관이 천간에 노출되었다면 합하거나 칠살과 섞이거나 정관이 또 있거나 지지에 형과 충이 되었다면 좋지 않다. 다른 격국도 이와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일간의 기가 강하고 재와 관이 약하다면 재와 관, 식신, 상관이 대운과 세운에서 들어와야 좋다. 인수가 식신과 상관을 극하는 용신이면 관과 인수가 많아지면 운이 좋고 재운이 들어오면 인수를 극하니 좋지 않다. 또한 인수가 용신이라면 인수가 중첩해 있어도 재운이 나쁘지 않다. 하지만 정관격에 칠살이 섞이면 관살혼잡이 되고 식신과 상관운은 인수를 생하는 칠살을 극하므로 나쁘다.

재는 정관과 함께 4길신으로 식신과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고 관과 살을 생하며, 인수를 극하면서 비견이나 겁재로부터 극을 받는다. 재는 재물을 뜻하며 재격이란 일간을 보았을 때, 월 지장간 중 투간하는 용신이 정재나 편재인 경우를 말한다.

인수는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정인가 편인을 가리지 않고 길신이다. 인수의 상신은 관과 살과 식신과 상관이고, 인수가 용신일 때 정관이 인수를 생해주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인수가 비견과 겁재를 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수는 재로부터 극을 당하거나 식신을 극하는 경우나 극이나 합이 되면 안 된다. 비견과 겁재가 있어 재의 극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수격에 정관이 있고 인수가 많다면 오히려 재운이 좋고, 식신과 상관운이 가장 좋다. 인수격에 식신과 상관을 사용하는 사주는 재운이 좋고 칠살의 운은 나쁘지 않다. 인수격에 칠살이 있으면 식상운과 일간의 기가 강한 운이 좋은데, 재운은 좋지 않다. 인수격에 재가 있는 경우는 재를 막아주는 겁재가 좋고 관과 인수도 좋고 재는 좋지 않다.

식신은 비견과 겁재로부터 생을 받으며 재를 생하여 관살을 극제하고 인수로부터 극을 받는다. 식신은 길신이지만 일간의 기운을 빼는 상관과 같다. 상관은 인수로부터 극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식신은 인수를 만나면 나쁘다. 식신은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외격의 辰戌丑未는 암장된 것이 많고, 용신이 한 가지가 아니므로 잡기라고 했다. 천간에 투간한 것이 있거나, 지지에서 합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골라 용신으로 삼는다. 하나가 투간하면 하나를 쓰고, 겹해서 투간하면 겹해서 쓴다. 합하고 유정한 것은 좋고 합하나 무정한 것은 좋지 않다.

辰戌丑未는 형과 충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재와 관이 辰戌丑未 지장간의 고에 들어가 입고되고 있다. 잡기로 천간에 투간하거나 지지에서 회합하면 좋다. 잡격은 월령에 용신이 없어서 외격으로 쓰는 것이다.

그래서 잡이라고 했으며 천간에 관성이나 칠살이 없어야 외격이 된다. 월령의 지장간이나 월령 자체의 용신이나 정관, 칠살이 없을 때 다른 오행을 용신으로 삼는다.

재가 투간해도 격을 취할 수 있으며 재성의 뿌리가 많거나 두 개 이상 투간하면 재가 많은 것이므로 외격에서 찾지 않는다. 이상은 『자평진전』의 격에 대한 구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IV. 『자평진전』 명리이론 분석

1. 정격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

월령중심의 격국이 월령 용신이다. 격을 보고 좋고 나쁨을 결정하며, 일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격은 지지의 월령 본기나 지장간의 투간 된 것으로 정격에는 정관격, 재격, 인수격, 식신격, 상관격, 편관격이 있으며, 이들 정격의 용신과 운의 승패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다.

1) 정관격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질서, 품위, 도덕심, 법률 등의 필요한 제도들이 있다.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정관격은 항상 공정하고 모범적이며 보수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편관은 무인(武人), 정관은 문인(文人)에 비유하고, 관리규제를 의미하며 이성적이다.³³⁾ 정관격은 원칙과 공명정대함의 성향

33) 신용진, 『사람을 읽는 명리학』 2010, p.48.

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신임(新任), 신뢰(信賴), 원리원칙(原理原則), 복지부동(伏地不動)을 추구한다.

『자평진전』에서 정관이란 나를 극하는 것으로 일주를 제어한다. 정관격은 형충파해를 꺼리는데, 존엄하고 귀한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연해자평』을 보면 월천간에 관성이 있는 것이 정관격이다. 시천간에 재성이 함께 있으면 귀하다. 정관격은 충을 두려워하고 상관과 칠살을 보는 것을 싫어하며 대운에서도 상관과 칠살을 만나는 것이 안 좋다. 인수와 일간의 기가 약하면, 재성을 좋아하고 세운도 같다. 관성은 천간에 투간 되어야 좋은데 지장간에 암장한 것은 투간한 관보다 좋지 않다. 관이 있다는 것은 위엄과 덕망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이니, 국가에 중요 요직에 등용되어 큰 인물이 될 수 있다.³⁴⁾ 바른 기운의 관성은, 형충을 꺼린다. 관성이 많으면 살(殺)로 변하고, 하나만 있어야 진정한 관성이다. 관성이 암장되고 칠살이 적을 경우, 칠살이 노출되면 정관격이 아니다. 이럴 경우 파격이 되는데, 하는 일이 성취되기 어렵다.³⁵⁾

정관이란 귀함을 뜻하며 존중받아야 하며, 나라에 있어서는 임금이 있고 가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있는 것과 같고 형충파해는 아랫사람이 해치는 것이니 좋지 않다.³⁶⁾

『자평진전』을 보면 정관은 높고 귀한 것으로 재의 생조를 받고 인수를 생한다. 재성과 인수를 같이 사용하면 좋으며 그 다음 재성만 사용되는 것이고 인수만을 사용할 경우가 마지막으로 좋다. 인수만을 홀로 쓰는 것이 하나의 재성만

34)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122. 月上有官星者是也, 時上兼有財星者, 眞貴人也. 怕沖, 忌見傷官七殺, 大運亦然; 喜印殺, 喜身旺, 喜財星, 歲運同. 官星宜露, 豈可藏之. 似乎爲官者, 顯揚威德, 則用之國家者, 方爲大丈夫; 豈受人之壓伏者, 則爲臣下之臣, 豈非小人.

35)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124. 正氣官星, 切忌刑沖; 多則論殺, 一位名眞. 官藏殺淺, 露殺官升; 今則爲破, 事恐不成.

36)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39. 본문 참고.

을 쓰는 것만 못하다.

인수로 정관을 보호 할 수 있고 정관의 기운을 설기할 수도 있으나, 재성은 정관을 생한다. 정관이 인수와 합하여 인수로 변격이 되어 재성이 투간하면 매우 빠어나고 귀한 격이다.³⁷⁾ 정관의 특성은 재로부터 생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인수가 있어 식신과 상관의 극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그 다음으로 좋다. 정관 또한 일간을 극하는 기운이며 정관이 용신일 때는 일간이 힘이 있어야 한다. 용신이 정관이고 식신이나 상관을 보면 식신과 상관이 길신인 정관을 극하여 ‘정관격이 패격’이 된다.³⁸⁾ 용신이 정관일 때 흉신인 편관을 만나게 되면 관살혼잡이 되므로 ‘정관격이 패격’이 된다.³⁹⁾ 정관은 길신이므로 극하거나 합하면 안 된다. 정관의 상신은 재와 인수이다. 재는 길신인 정관을 생해주고, 인수는 식신과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한다. 정관이 용신일 때 정관이 극을 당하거나 합이 되면 직위를 빼앗기거나 잃게 되고, 정관이 용신일 때 정관이 또다시 투간되면 상황에 따라 직위를 얻어 귀하게 된다.

『삼명통회(三命通會)』의 『논정관(論正官)』을 보면, 甲木은 辛金을 만나고, 乙木은 庚金을 만나는 예가 정관이다. 음양배합의 극은 좋은 것이며, 정관을 육격의 머리라 했다. 정관은 하나만 허용하는데 많으면 좋지 않다. 정관은 월령과 비교 분석한 뒤에 나머지를 보아야 한다. 월천간이 정관이면 가장 좋다. 년은 15세까지를 관할하니 어린 시절이고 시천간은 오십세 이후를 관할하니 늦은 나이이므로 월령의 정관을 正이라 한다.⁴⁰⁾

사주 내에 정관이 있으면 약속을 잘 지키며 책임감이 강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맡겨도 불안하지 않다. 다만 신중하고 원리원칙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서는 대응력이 떨어지고 소심해 보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성실하고 반듯하여 조직생활을 잘한다.

37)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41. 以印能護官, 亦能泄官, 而財生官也。若化官爲印而透財, 則又爲甚秀, 大貴之格也。

38)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47. 본문 참고.

39)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44. 不可雜殺, 不可重官。

40) 萬民英 原著, 『三命通會』, 育林出版社, 2013, p.237. 본문 참고.

① 정관격이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전』을 보면 관격 운을 취하는 방법은, 사주에 따라 다르며, 이치가 정교하고 원칙의 융통성이 크다. 사주를 풀어서 얘기할 때 사람이 하는 것이니 만큼 이론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정관격에서 운을 취하는 법을 보면, 정관이 격을 통솔하는 상태이며, 정관은 재와 인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간의 기가 약하다면 나를 돕는 운이 와야 좋고, 정관이 약하다면 정관을 돕는 운이 와야 좋다. 정관이 천간에 노출되었다면 합하거나 칠살과 섞이거나 정관이 거둬 있거나 지지가 형과 충이 되었다는 정관용재(正官用財)가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인수와 일간이 왕해지는 운이 오면 좋다. 그러나 식신과 상관을 만나게 되면 좋지 않다.

일간의 기운이 왕하고 재성과 관성이 약하다면 재와 관운이 좋다. 정관격에 인수를 겸한 사주는 일간의 기운이 왕하고 재성과 관성이 약하여 재성과 관성운이 와서 일간과 상대해야 좋다. 이 경우 재운과 식상운을 만나면 좋다. 관이 강하고 일간의 기가 약한 경우에는 인수가 용신이 되어 일간의 기운을 생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때 재운이 와서 용신이 되는 인수를 극하면 좋지 않다. 정관격에 식신과 상관이 있고 인수가 식신과 상관을 극하는 용신이면, 관과 인수가 왕해지는 운이 좋고, 재운은 재가 식신과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해주는 인수를 극하여 좋지 않다. 그러나 인수가 2개, 3개, 4개가 있다면 재운도 해롭지 않다.

또한 정관격에 칠살이 섞여 있으면 식신과 상관을 만나도 나쁘지 않다. 사주에서 겁재와 칠살이 합하고 있으면 식신과 상관, 재를 만나도 좋다. 일간이 기가 강한 운은 인수운도 좋다. 칠살의 운이 다시 오면 좋지 않다. 사주에서 상관이 칠살을 합하고 있다면 식신과 상관과 재운이 좋지만 인수를 만나면 좋지 않다. 운은 글자마다 특징이 다르니 분석하고 판단을 잘해야 한다.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된다. 정관격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격국도 마찬가지다. 다음은 정관격 예시 명조이다.

『자평진전』 李參政 정관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甲 乙 庚
辰 子 酉 寅
辛 庚 己 戊 丁 丙
卯 寅 丑 子 亥 戌

『자평진전』의 예시명조인 이참정(李參政)의 사주이다. 甲木 일간이 酉월생으로 정관을 용신으로 정한다. 甲木 일간은 년지의 寅木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일간의 기운이 강하다. 월지장간에서 투간한 칠살 庚金을 년천간에 올려 정관에 편관이 투간하여 관살혼잡의 형태가 되었다. 월천간이 양인겁재인 乙木이 편관 庚金과 합하여 관살혼잡의 살을 합하고 관이 유지되어 합살류관(合殺留官)으로 성격이 되었다.⁴¹⁾

시지의 辰土와 일지의 子水가 반합의 水가 되어 인성이 되었다. 초년운인 丙戌대운은 丙火가 시천간의 戊土인 편재를 생하며 지지엔 戌土가 월지 酉金, 정관격을 생하니 환경이 부유한 가운데 대운 지지의 水 인성운을 만나 공부하여 학문이 깊었다. 다음은 또 다른 정관격의 예시 명조이다.

『자평진전』 宣參國의 정관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辛 壬 辛 己
未 寅 未 卯
乙 丙 丁 戊 己 庚
丑 寅 卯 辰 巳 午

41)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42, 참고.

『자평진전』에 있는 선참국(宣參國)의 사주이다. 壬水일간이 未월생이니, 정관을 용신으로 정한다. 년천간에 정관인 己土가 투간되어 용신으로 정하기에 좋다. 월천간 辛金과 시천간에 辛金이 상신이 되어 木의 극으로부터 己土인 정관을 보좌하고 있어 성격이 된 사주이다. 그러나 지지의 木국이 커져서 식신과 상관격으로 격이 떨어졌다. 초년대운은 巳午未 대운으로 용신인 정관 土를 생하여 크게 길하게 되었다.⁴²⁾ 戊辰대운은 칠살이기에 관살혼잡의 형태가 되어 직위나 직업이 난제에 빠지는 시기다. 丁卯대운은 정재인 丁火가 정관인 己土를 생하지만, 정인인 辛金도 극하니 이를 일간이 재를 탐하고 재가 인수를 극한다 하여 탐재괴인이라 한다. 지지의 卯木는 정관인 未土와 합하여 木이 되어 식상이 커져 활동영역이 넓어졌다. 乙丑대운은 壬水일간의 정관격이 상관을 보았으나 정인 辛金에 의해 상관 乙木이 극을 당하여 어려움을 면하게 되었다. 丑土는 월지인 정관 未土와 충을 하여 이어나 직장의 이동이 있다. 지지 상관 卯木과 식신 寅木으로부터 정관이 극을 당하여 크게 패하게 된다. 사주의 구조가 중요하지만 대운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현상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연구자가 사주를 풀이한 상관견관의 예시 명조를 살펴보자.

상관견관의 사업가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乙 丙 丙
辰 巳 申 辰

乙木일간이 申월생으로 정관격이다. 시천간에 용신인 정관 庚金이 투간하여 격을 이루었으나, 월간의 상관이 투간하여 시천간에 정관 庚金을 극하게 되어 좋지 않게 되었다. 이 같이 정관격이 상관을 본 사주의 구조를 상관견관(傷官見

42)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43, 참고.

官)이라 한다. 천간의 丙火에 의해서 정관격이 패한 경우가 되어, 상관인 丙火가 흉신이 된다. 다음은 재생관이 되는 예시명조이다.

재생관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癸	丙	庚	辛
巳	子	子	酉

丙火가 子월에 태어났으니 정관격이다. 시천간에 용신인 정관 癸水를 투간하였으며, 월천간의 편재 庚金이 시천간의 정관 癸水를 생하고 있다. 재가 용신인 정관 癸水를 생하니 성격이 되었다. 지금까지 『자평진전』을 중심으로 정관격에 대해서 분석하여 연구해보았다. 이것을 표로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다.

<표 1> 『자평진전』 정관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財, 印	食神, 傷官, 殺
財	正官, 印	比劫, 殺
印	正官, 殺	財
食神	財, 殺	正官
傷官	財, 殺	正官
殺	印, 食神, 傷官	正官, 財

※ 정관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재와 인수가 오면 성격이 되며 식신과 상관, 칠살이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2) 편관격

① 편관격의 기본적 특성

편관격은 나를 극하는 것으로 흉신에 해당하며 사주에 관이 많은 것도 편관처럼 작용하여 좋지 않다. 특히 정관과 편관이 섞인 관살혼잡의 경우가 좋지 않다. 칠살의 직업은 사업가, 정치인,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군인, 교수 등이 많다.⁴³⁾ 정관이 있으면 일간의 기가 강함과 인수를 좋아하며, 관살이 있을 때는 형충과해를 싫어한다. 편관을 칠살이라고 하는데, 『연해자평』에서는 칠살을 편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칠살로 일간을 공격하면 좋지 않으나, 귀한 격은 칠살을 가지고 있다. 합하고 극함이 있으면 칠살은 일간에게 좋은 작용을 한다. 왜냐하면 큰 인물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거나, 이를 대처할 방법이 있으면 된다. 칠살의 격국은 많은데, 칠살격에서 식신이 칠살을 극하고 합하는 경우가 좋은 격이다. 칠살의 기운이 강하고 식신이 왕한데 일간의 기가 강하면 귀격이다. 예를 들어 乙亥, 乙酉, 乙卯, 丁丑은 귀한 격이다.

칠살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丁 乙 乙 乙
丑 卯 酉 亥

일간의 기가 강하면 극하고 합하는 양인을 좋아한다. 일간의 기가 약할 경우

43) 김동완, 『서양 상담 심리 이론과 사주명리학에 나타난 성격 진로 적성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1, p.41.

에는 재성이 생해주는 것은 안 좋고 극과 합이 없으면 역시 안 좋다. 일간의 기가 강하면 편관을 합하고 극하면 좋게 된다. 예를 들어 甲木에게 庚金이 칠살인데 丙火, 丁火가 극하면 乙木이 합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를 탐합망살(貪合忘殺)이라 한다. 칠살은 합하고 극해야 하나 합과 극이 많으면 도리어 안 좋다. 일간의 기가 약한데 합이 없으면 칠살이 되어 나를 극한다. 정관이 있는 것보다 편관이 있는 것이 큰 부자와 크게 귀한 사람이 많다.

일간의 기운이 약하면 일간의 기가 강한 운으로 가면 좋다. 일간의 기가 약한데 기가 약한 운으로 가면 좋지 않다. 사주에 극하고 합함이 있으면 칠살운이 좋으나 합하고 극함이 없는데 칠살운으로 가면 화가 되어 흉하다. 일간의 기가 강한 운으로 가고 양인이 있으면 귀하며 재가 많은 것을 꺼리는데 재는 칠살을 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운에 재운이 오면 칠살을 생하여 일간을 더욱 강하게 극하기 때문에 일간의 기가 강해야 좋다.

『삼명통회』에서는, 일간의 기가 강한 것, 인수, 칠살을 합하고 극하는 것, 양인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편관은 甲木이 庚金을 乙木이 辛金을 만나 일곱 번째 순서에 서로 극하기 때문에 칠살이라 한다. 칠살은 흉폭하며, 극하는 것이 없으면 사주에서 나쁘게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칠살을 극하고 합해야 한다. 사주에서 칠살이 있다면 일주는 인간이 건강하고 기가 왕해야 하며 인수가 있으면 좋다. 인성을 만나면 살이 인성을 생하고 도와준다. 일간의 기가 약하고 칠살이 강하면 재성은 칠살을 생하여 일간의 기를 뺏는다. 그렇게 되면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한다. 이럴 경우에는 식신이 투간하여 칠살을 극해야 좋다. 칠살은 양인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고, 칠살은 양인을 만나야 좋다. 극은 합하면 변하고 너무 지나치면 좋지 않다. 칠살이 좋게 작용하면 군자를 호위하여 권위를 세울 수 있게 되므로 크게 귀한 명이 된다. 일주는 기가 약함을 꺼리고 칠살을 중복하여 보거나 강력한 칠살과 서로 충하면 흉하다.⁴⁴⁾

칠살이 있는 사주는 성격이 칼날과 같이 날카로운 면이 있어서 학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력을 갖추고 있다. 또 여러 사람을 통솔하고 리더로의 역할을 하기에, 사회에서 높은 직위를 갖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 반대로

44) 萬民英 原著, 『三命通會』, 育林出版社, 2013, p.245. 참고.

지나치게 칠살의 기운이 약한 사주는 성격이 소심하여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대중 앞에서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지 못한다.

② 편관격(偏官格)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진』을 보면 편관격 운을 취하는 방법은 편관격이 이루고 있는 국을 잘 분별한 후에 풀이한다. 식신을 사용하여 편관을 극하고 합하는 국에서는, 칠살이 많고 식상이 가벼울 때 살중식경(殺重食輕)이 되어 식신을 돕는 운이 와야 좋다. 살이 작고 식신과 상관이 많을 때 살경식중(殺輕食重)이 되어 칠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좋다. 칠살과 식신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일주의 기가 약하면 일주를 돕는 운으로 가야하며, 칠살을 혼잡하게 하는 정관운과 식신, 상관을 극하는 인수운은 안 좋다. 칠살격에 인수를 쓰는 사주는 재운에 불리하다. 칠살이 인수를 생하고 인수가 일간을 생하는 것을 재운이 와서 재가 인수를 극하고 칠살이 일간을 극하기 때문이다.

칠살격에 재를 쓰는 사주는 재가 인수를 제거하고 식신을 보존하는 것이라면 비견운과 겁재운이 불리하다. 그리고 식신, 상관이 길하면, 재운은 길하고 인수운은 좋지 않다. 칠살이 대운 천간에 투간해 있어도 좋다. 재성으로 칠살의 부족함을 보충할 때, 재가 충분하다면 식신운과 인수운이 좋고, 재가 부족하다면 재운과 칠살운이 좋다.

칠살격에 정관이 있는 사주는 살을 살리고 관을 극하는 거관류살이든, 관을 살리고 살을 극하는 거살류관이 좋다. 일간의 기가 약하면 그대로 흘러가는 운이 와야 하고, 식신이 약하다면 식신을 도우는 운으로 가야하고, 사주가 충, 합 등이 없어야 좋다.

칠살격에서 식신을 극하고 합하는 힘이 없어서 양인으로 칠살을 만났을 때, 칠살이 약하고 양인의 기가 강하다면 칠살을 돕는 운이 좋다. 반대로 양인이 약하고 칠살의 기가 강하다면 칠살을 극하고 합하는 운으로 가야 한다. 사주에 칠

살을 극하는 식신이 없다면 칠살이 인수를 생하는 인수운이 좋다. 칠살이 있는데 정관이 있다면 관살혼잡이 되어 좋지 않다. 다음은 편관격의 예시 명조이다.

『자평진전』 편관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丁 乙 乙 乙
 丑 卯 酉 亥
 己 庚 辛 壬 癸 甲
 卯 辰 巳 午 未 申

乙木일간의 酉월생이다. 칠살격으로 월천간과 년천간의 비견 乙木이 시천간의 丁火 식신을 생하는데 칠살인 酉金이 천간에 투간할 때마다 식신이 극하는 식신 대살(食神帶殺) 사주이다. 이 사주는 칠살격으로 대운이나 세운에서 칠살이 왔을 때, 능력을 발휘하여 어려운 일을 해결하게 된다.

인수가 식신을 극하여, 식신이 칠살을 합하거나 극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재성으로 인수를 없애고 식신을 보존하면, 귀격이 된다. 예를 들어 주승상(周丞相)의 사주는 戊戌, 甲子, 丁未, 庚戌이다. 상관 戊土가 인수 甲木의 극을 받아 대운, 세운에서 칠살을 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시천간에 庚金 재성이 인수를 제거하니 식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부족한 칠살을 생하며 칠살을 극하고 합하는 것으로 모두 쓰임을 얻었으니 크게 좋게 되었다.⁴⁵⁾

45)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308, 而或食被制, 不能伏殺, 而財以去印存食, 便爲貴格. 如周丞相命, 戊戌, 甲子, 丁未, 庚戌, 戊被制不能伏殺, 時透庚財, 卽以清食者, 生不足之殺. 生殺卽以制殺, 兩得其用, 尤爲大貴.

다음은 또 다른 편관격의 예시 명조이다.

『자평진전』 周承相의 편관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丁	甲	戊	乾命
戊	未	子	戊	
庚	己	戊	丁	丙 乙
子	亥	戌	卯	寅 丑

丁未일간이 子월생으로 칠살격이다. 월지 子월의 癸水가 투간시에 년천간의 戊土와 합을 한다. 시천간의 庚金 정재가 부족한 칠살을 생하며 년지의 戊土, 일지의 未土, 시지의 戊土이 월지의 편관 子水의 기운을 빼니 토다수축(土多水縮)이다. 己亥대운의 亥水부터 子월의 편관이 힘을 얻는다.

칠살격이 정관을 만나 혼잡되는 경우가 있다. 관성을 없애거나 칠살을 없애거나, 깨끗함을 취하면 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악통제(嶽統制)의 사주는 癸卯, 丁巳, 庚寅, 庚辰으로, 정관을 없애고 칠살을 남겨둔 것이다. 정관은 귀한 기운인데, 정관을 없애는 것은 칠살을 없애는 것보다 귀하지 않다. 월령이 편관이면, 칠살이 용신이고 관성이 용신이 아니다. 정관격에 칠살이 혼잡 되어, 정관을 없애고 칠살을 남겨두면, 깨끗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심랑중(沈郎中)의 사주는 丙子, 甲午, 辛亥, 辛卯이다. 子水가 午火를 충하고 칠살을 극하니, 이것은 칠살을 없애고 관성을 남겨두는 것이다.⁴⁶⁾

46)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310. 有殺而雜官者, 或去官, 或去殺, 取清則貴. 如嶽統制命, 癸卯, 丁巳, 庚寅, 庚辰, 去官留殺也. 夫官爲貴氣, 去官何如去殺, 豈知月令偏官, 殺爲用而官非用, 若官格雜殺而去官留殺, 不能如是之清矣. 如沈郎中命, 丙子, 甲午, 辛亥, 辛卯, 子沖午而剋殺, 是去殺留官也.

다음은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편관격의 예시 명조인 심랑중의 사주이다.

『자평진전』 沈郎中の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辛 辛 甲 丙 乾命
 卯 亥 午 子

심랑중의 사주는 辛金일간이 월지 午火로 편관격이다. 년천간에 정관 丙火를 투간해 정관과 편관이 혼잡이 되어 관살혼잡이 되었다. 그러나 년천간의 辛金 비견이 丙火 편관을 합하여 관살혼잡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년지의 식신인 子水가 칠살 午火를 충하여 칠살을 없애고 천간에 정관만 남겨 두었다. 관살혼잡의 사주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여 일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윗사람을 무시하고 질서를 깨는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편관과 정관이 같이 있는 사주는 정관 하나만 남겨 두거나 편관 하나만 남겨두어야 좋다. 다음의 <표 2>는 편관격의 성패에 대한 내용이다.

<표 2> 『자평진전』 편관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食神, 傷官, 比劫, 印	七殺, 正官, 財
財	食神, 傷官, 印	正官, 七殺
印	七殺, 比劫	財
食神	印	財
傷官	七殺, 比劫	印
殺	印, 食神, 傷官, 陽刃	正官, 財

※ 편관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식신, 상관, 비겁, 인수가 오면 성격이 되며 칠살, 정관, 재가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3) 재격(財格)

① 재격의 기본적 특성

재격은 정관과 함께 『자평진전』에서는 4길신의 격으로 분류된다. 재는 식신과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고 관과 살을 생하고 인수를 극하면서 비견이나 겁재로부터 극을 받는다. 재는 재물을 뜻한다. 재격이란 일간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월지가 정재나 편재에 해당하고, 투간한 월지장간의 용신이 정재나 편재인 경우를 말한다. 편재의 의미와 특징은 이재(理財)에 밝고, 순발력과 민첩성이 탁월하며 추진력과 승부욕이 강하다.⁴⁷⁾

『자평진전』에서는 정재와 편재를 같은 격으로 다룬다. 재는 내가 극하는 것으로 관을 생하여 좋은 것에 해당하며, 재물이 되고 처와 첩이 되고 돌아다니는 역마가 되기도 한다. 재격은 월지가 재이거나 월지내 지장간이 투간한 것이 용신이 되며 정재와 편재로 나누지 않는다. 정관과의 관계에서는 재가 관을 생하니 귀하게 되며, 식신이나 상관, 인성과의 관계에서는 성격이 되고, 비겁이나 편관을 만나면 패격이 된다.

『삼명통회(三命通會)』의 『논정재(論正財)』를 보면, 정재는 일간의 기가 강한 것과 인성, 식신, 정관을 좋아한다. 반대로 일간의 기가 약한 것을 꺼린다. 정재의 예를 들면 甲木은 己土를, 乙木은 戊土와의 관계에서 己土는 甲木의 정재이고, 戊土는 乙木의 정재가 된다. 일간의 기가 약하면 부인의 재성은 풍부하지만, 오히려 재성의 힘에 눌려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재성은 일간의 기가 왕해야 한다. 일주가 힘이 있으면 재성은 복이 있으며, 재성이 많고 일간의 기운이 약하면 인성의 도움이 필요하다. 재성은 적고 일주의 기운이 왕하면 재가 부족하여 좋은 운이 아니다. 재성은 많고 일간의 기운이 약하면 부유한 집의

47) 고해정, 『사주통변을 위한 궁성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3, p.40.

가난뱅이라고 말한다.⁴⁸⁾라고 했다.

재격 사주는 대운이나 세운에서 재운이 왔을 때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의사결정 능력이 약하다면 좋은 때를 놓쳐 작은 돈에 만족하게 된다. 큰 재를 취하기 위해서는 배포가 커야 하고 순간 판단력이 좋아야 한다.

내가 극하면 재가 된다. 사용하는 물건으로, 관성을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재물과 비단이 되고, 처와 첩이 되고, 재능이 되고, 역마가 되는 것은 모두 재성이다. ...중략... 재성은 뿌리가 깊은 것을 좋아하고 천간에 비견과 겁재에게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사주에 하나만 투간하면 깨끗하게 사용되어 격이 높아지며 천간에 노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월령의 용신이 아니라도, 寅木에 乙木이 투간되거나 卯木에 甲木이 투간하는 종류는, 하나로 많은 것으로 보지 않으나, 많으면 노출한 것이다.⁴⁹⁾

일간이 지지에 같은 세력이 있어 기가 왕할 때 재성이 커서 관성을 생해 주는 것이 좋다. 비겁으로부터 관성이 재를 보호하는 경우는 직위도 얻으니 재물과 직업이 좋아지는 사주이다. 재격에는 식신과 상관이 재를 생하며 비겁이 재를 충하거나 극하여 통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재성은 정관을 봐야하며 재와 관이 서로 상생하는 재생관(財生官)은 식신과 상관을 만나면 성격이 되고 인수를 만나도 좋고 편관과 함께 투간되면 좋지 않다.

48) 萬民英 原著, 『三命通會』, 育林出版社, 2013, p.255, 참고.

49)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真詮評註』, 進源書局, 2012, pp.252~253, 財爲我剋, 使用之物也, 以能生官, 所以爲美. 爲財帛, 爲妻妾, 爲才能, 爲驛馬, 皆財類也. 財喜根深, 不宜太露, 然透一位以清用, 格所最喜, 不爲之露. 卽非月令用神, 若寅透乙, 卯透甲之類, 一亦不爲過, 太多則露矣.

재격에 인수를 지니는 경우가 있다. 대개 외로운 재성은 귀하지 않으나, 인수를 지녀서 일간을 도우면 귀하게 된다. 그러나 재성과 인수는 서로 병행하면 재성이 인수를 극하게 되어 좋지 않다.⁵⁰⁾

재격에 인수를 쓰는 재격패인(財格敗印)의 외로운 재는 귀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인수가 일간을 도우면 귀하게 된다.

② 재격의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전』에서 재격 운을 취하는 경우는, 재격이 운에서 합이 되어 재격이 커진 경우인지 또는, 합이 되어 재격으로 변격이 되었는지를 잘 구분해서 봐야 한다. 재가 왕하고 관을 생하고 있는 재왕생관이 되었다면 일간의 운이 왕한 것과 인수운이 좋다. 하지만 칠살의 운은 칠살이 재의 힘을 받아 일간을 더욱 극하게 되어 좋지 않다. 재왕생관이 되었는데 인수가 투간했다면 상관운이 나쁘지 않은 것은 인수가 상관을 극하여 제어하기 때문이다. 재왕생관 되었는데 식신이 있어서 정관을 극하면 좋지 않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인수운이 와서 식신을 극하거나, 칠살운이 와서 칠살이 인수를 생하는 것이 좋다.

재격에 식신이 생하며 도와주는 것을 사용하는 재용식생(財用食生)의 경우에, 재와 식상이 많고 일간의 기가 약하면 일간의 운이 왕한 방향으로 운이 진행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재와 식신과 상관이 약하고 일주의 기가 강하면 재와 식신과 상관운이 들어와야 좋다. 칠살운 역시 나쁘지는 않으나 관과 인의 운은 불리하다.

재격에 인수를 쓰는 재격패인의 격국은 관운이 길하다. 관운이 오면 재와 인과 관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일주가 약하다면 일간을 생해주는 인수운이 좋다. 재격에 식신과 인수를 쓰는 재용식인(財用食印)의 격국은, 재가 약하다면 재와 식

50)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54. 有財格佩印者, 蓋孤財不貴, 佩印幫身, 卽印取貴. 然財印不宜相並.

신의 운이 와야 좋고, 일간의 기가 약하다면 비겁과 인수운이 좋으며 재가 정관을 생하는 정관운은 좋다. 칠살운은 재가 칠살을 생하기 때문에 나쁘다.

재격에 상관이 있는 재대상관(財帶傷官)의 격은, 재운이 좋고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가 칠살을 생해서 칠살운은 나쁘다. 재격에 상관이 있는데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정관운은 나쁘며 재가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인수의 운은 좋지 않다. 재격에 칠살이 있는 재대칠살(財帶七殺)의 격국은, 재가 칠살을 생하기 때문에 칠살이 합이 되거나 극을 당하면 좋다. 식상이 칠살을 극하기 때문에 식상운과 일간의 기가 강한 운이 좋다.

재격에 칠살과 인수가 있는 재용살인(財用煞印)의 격국은 인수가 왕한 운이 좋고 재운은 나쁘다. 편재는 재물에 인색하지 않으며 지지를 얻을 시는 재물이 풍성해지는데 그치지 않고 관성을 왕하게 할 수 있다. 재성이 왕성하면 스스로 관성을 생한다. 사람됨이 유정(有情)하나 거짓이 많다. 재물은 본인을 이롭게 하고 남의 험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왕상운으로 행하면 복이 모이나 크게 왕함을 두려워하고 형제는 재성을 파괴하므로 좋지 않다.⁵¹⁾

다음의 예시명조는 재격이 인수를 보았을 때 사주의 해석에 대한 내용이다.

재격패인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壬	乙	癸	壬
午	卯	丑	子

51)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110. 偏財主人慷慨, 不甚吝財, 惟是得地不止, 財豐亦能官旺, 何以言之, 蓋財盛』自生官矣, 但爲人有情而多詐. 蓋財能利己, 亦能招謗, 運旺相, 福祿俱臻. 只恐太旺, 兄弟必多破壞, 亦不美.

재격에 인수를 보게 되면 재격패인(財格佩印)의 사주이다. 乙木 일간이 丑월에 태어나 편재격이 되었다. 년천간과, 월천간과 시천간에 정인과 편인이 투간하였으며 년지의 편인 子水와 월지의 편재 丑土가 합하여 6합으로 재가 커졌다. 편재격인 丑土의 지장간 중에 정인 壬水가 천간에 투간되어 재격패인이 되었다. 이 사주의 직업은 전문 컨설턴트로 기업컨설팅 회사에서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다. 문서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직업이 되었다. 이러한 사주에 의해서도 직업적성을 예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⁵²⁾ 그리고 재가 관을 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시명조를 통해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자평진전』 葛參政의 재생관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乙 戊 壬 壬

卯 午 子 申

戊土가 子월생으로 정재격이 되었다. 년천간과 월천간에 용신인 편재 壬水를 투간하였다. 월지의 子水와 년지의 申金과 합하여 재국을 이루었으며 시지의 정관이 일지 午火를 생하니 성격이 되었다. 재격에 정관이 있는 사주는 재가 정관을 생해주고 보호해주므로 직위가 안정적이고 탄탄해진다.

『자평진전』에 나오는 재격의 명조이다. 이 예시명조를 통해 재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52) 이선종, 『사주로 본 직업적성과 적성검사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p.1.

『자평진전』 楊恃良의 재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辛 庚 壬 壬

巳 辰 寅 寅

戊 丁 丙 乙 甲 癸

申 未 午 巳 辰 卯

庚金 일간이 寅월생 편재격으로 년천간과 월천간에 식신 壬水와 시천간에 양인겁재인 辛金을 보았다. 寅월 재격에 년, 월천간에 식신을 본 것은 성격이 되었으나, 일간의 뿌리가 되는 것이 없어 재를 취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천간에 寅木과 卯木의 木이 투간되는 운에서는 재가 과극되는 현상이 생긴다.

대운 癸卯, 甲辰 운에서 寅월 용신 편재격의 재운으로 흘러 풍족한 생활을 했지만, 재를 추구하니 재가 인수를 극해 학문에는 소홀하게 되어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다. 乙巳 대운은 지지의 巳火가 월지의 寅과 형살(刑殺)을 일으키며 칠살과 재성에 문제가 있다. 천간의 용신인 乙木이 양인겁재인 辛金에게 과극 당하니 재에 의한 어려움이 있다. 丙午대운은 지지 午火가 재격에 정관을 보아 합이 되어, 재격이 운에서 관격으로 변경 되었다. 천간의 丙火 칠살이 양인겁재 흉신을 만나 흉신과 흉신이 합하여 제거되니 丙午대운은 성격이 되어 좋은 대운이다. 丁未대운은 庚金 일간에 寅월 재격이 인수 未土를 만나 인성과 재를 겸하게 되었고, 천간의 용신 丁火 정관이 식신 壬水와 합하여 제거 당하니, 직위를 내어주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戊申대운은 인성인 戊土가 辛金을 생하고 壬水를 제어하며, 辛金은 뿌리의 세력이 없던 사주에 힘이 생겨서 재성을 제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좋은 시기가 된다.

재격에 인수가 있을 경우, 약한 재성은 귀하지 않으나, 인수가 있어 일간을 도우면 귀하게 된다. 乙未, 甲申, 丙申, 庚寅의 증참정 사주가 이것이다. 재성과 인수는 함께 있으면 인수가 극을 당하여 마땅하다. 乙未 己卯 庚寅 辛巳는, 乙木과 己土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으니, 좋은 거주지가 있더라도 작은 부자였을 뿐이다.⁵³⁾

계속해서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재격의 예시명조를 통해 재격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평진전』 增參政의 재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丙	甲	乙
寅	申	申	未
戊	己	庚	辛
寅	卯	辰	巳
			午 未

丙火일간에 申월생의 편재격이다. 일간의 뿌리 세력이 힘이 없는 가운데 시지와 월천간의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있어 귀하게 되었으며, 시지의 寅木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 힘이 있게 되었다. 시천간의 편재인 庚금이 월천간의 甲木과 년천간의 乙木인 인성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 일간이 丙火로서 庚金を 제어하기 때문이다. 己卯, 戊寅대운은 재격이 인성을 겸비하게 되어 성격이 되었으나, 戊寅대운은 일지와 월지를 충해 변동수가 있다.

53)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真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55. 有財格佩印者, 蓋孤財不貴, 佩印幫身, 卽印取貴. 如乙未, 甲申, 丙申, 庚寅, 曾參政之命是也, 然財印宜相並, 如乙未, 己卯, 庚寅, 辛巳, 乙與己兩不相能, 卽有好處, 小富而已.

식신이 있고 인수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다. 식신과 인수가 서로 방해하지 않거나, 지장간에 관성이 있어 식신을 극하고 관성을 보호하면 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오방안의 사주는 庚戌, 戊子, 戊子, 丙辰인데, 庚과 丙 양 쪽을 戊土가 막아 극하지 않으니, 식신과 인수가 서로 방해하지 않는다.⁵⁴⁾

다음은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재격의 예시 명조이다.

『자평진전』 平江伯의 재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辛 癸 乙 壬
酉 巳 巳 申
辛 庚 己 戊 丁 丙
亥 戌 酉 申 未 午

癸水 일간에 巳월생으로 정재격이다. 용신은 시천간의 辛金 편인격으로 월지 용신과 천간의 용신이 다른 변격이다. 시천간에 辛金이 월천간의 乙木을 극하고 壬水를 생하지만 巳火의 월지에 있는 지장간, 戊, 庚, 丙의 戊土가 투간 될 때 월간의 乙木으로부터 戊土 정관을 보호하게 되어 좋게 된다. 하지만 월지의 巳火와 년지의 申金이 합해서 水기운이 되고 寅巳申 삼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사주는 배운 바탕에 말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戊申대운에 직위와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

54)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56. 有用食而兼用印者, 食與印兩不相礙, 或有暗官而去食護官, 皆貴格也. 如吳榜眼命, 庚戌, 戊子, 戊子, 丙辰, 庚與丙隔兩戌而不相剋, 是食與印不相礙也.

재격이 칠살을 보거나, 또는 칠살을 합하여 재성을 남겨놓거나 칠살을 제거하고 재를 생하는 경우는 모두 귀격이다. 예를 들어 모장원의 사주는 乙酉, 庚辰, 甲午, 戊辰으로 칠살을 합하고 재성을 남겨 놓았다. 이어사의 사주는 庚辰, 戊子, 戊寅, 甲寅으로 칠살을 극해서 재성을 생한다.⁵⁵⁾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예시명조로 모장원 사주를 통해 재격을 고찰해 보겠다.

『자평진전』 毛裝元의 재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甲 庚 乙 乾命
辰 午 辰 酉
甲 乙 丙 丁 戊 己
戊 亥 子 丑 寅 卯

앞의 예시명조는 인용문에서 말한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모장원의 명조로 재격의 사주이다. 모장원(毛裝元)의 사주는 甲木일간에 辰월생으로 편재격이다. 시지의 酉金 정관과 합하여 관격으로 변경 되었다. 시천간의 乙木 양인겁재와 월천간의 庚金 칠살이 乙庚 합하였다. 그래서 시천간의 편재 戊土만 남겨두어 성격이 되었다. 계속해서 인용문에서 말한 이어사의 재격 명조를 살펴보겠다.

55)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258. 有財帶七殺者, 或合殺存財, 或制殺生財, 皆貴格也, 如毛狀元命, 乙酉, 庚辰, 甲午, 戊辰, 合殺存財也, 李禦史命, 庚辰, 戊子, 戊寅, 甲寅, 制殺生財也.

『자평진전』 李御使의 재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甲 戊 戊 庚 乾命
寅 寅 子 辰
甲 癸 壬 辛 庚 乙
午 巳 辰 卯 寅 丑

이어사의 사주는 戊土일간에 子월생으로 정재격이다. 년지의 辰土와 합하여 子辰 水국을 이루어 재국을 이루었다. 년천간의 庚金이 투간하여 시천간의 편관 甲木을 극하여 재격이 성격 되었다. 년천간의 식신 庚金이 壬辰대운과 癸巳 대운이 좋았다. 다음의 <표 3>은 재격의 성패에 대한 내용을 알기 정리한 도표이다.

<표 3> 『자평진전』 재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官, 印	七殺, 傷官
財	正官, 印	比劫, 七殺
印	正官	七殺, 傷官
食神	財, 七殺, 印	正官
傷官	財, 殺	正官, 印
七殺	印, 食神	正官, 財

※ 재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관과 인수가 오면 성격이 되며 칠살과 상관의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4) 인수격

① 인수격의 기본적 특성

인수는 정인과 편인을 가리지 않고 길신이므로 생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인수의 상신은 정관과 칠살과 식신과 상관이다. 길신인 정관이 인수를 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흉신은 살도 정관과 마찬가지로 인수를 생해 준다. 인수는 일간의 기운을 생하여 강하게 하지만 식신과 상관의 일간의 기를 약하게 하기에 상호 보완이 된다.

인수는 일간을 생하는 길신으로 관살로부터 생을 받고 비겁을 생하며 재로부터 극을 당한다. 인수는 길신이기 때문에 식신을 극하는 경우나 왕한 경우가 아니면 극이나 합이 되면 안 된다. 인성은 관살로부터 생을 받는 것을 좋아 하고 비겁이 있어 재의 극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 인수는 사주 해석에 있어 인간사에서 학문이나 지식 또는 책과 문서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일간을 극하는 관살의 기운을 보완시켜 일간이 생을 받게 해주면 성격이 된다.

『연해자평』을 보면 인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수는 재성을 무서워해서 사람이 재주를 감추고 있을 때 사주의 운에서 좋은 관운으로 가면 좋아진다. 좋은 관운은 인수를 생할 수 있으며 인수는 재성을 두려워하는데 재성이 인수를 극하기 때문이다. 인수는 나를 생하는 것이며 살아 있는 기운이라고 한다. 양이 음을 보고 음이 양을 보면 정인이라 하고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을 편인이라 한다.

즉, 甲木, 乙木, 丙火, 丁火 일간이 인수격인데, 재성이 인수를 극하려고 하는 것을 정관이 함께 있게 되면, 재성이 정관을 생하고 정관이 인수를 생하는 상생의 방향으로 순환되므로, 재성, 인수, 정관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② 인수격(印受格)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전』을 보면 인수격이 운을 취하는 경우는, 인수격에서 월지와 년지 또는 월지와 시지가 합이 되어 인수의 국이 되는 경우인지를 구분한 후에 운을 살펴본다. 인수격에 정관이나 편관이 있는 경우에는 관이 인수를 생하여 인수의 힘이 강해진다. 관의 근이 되어주는 정관과 편관의 대운이 좋다. 인수격에 식상의 운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정관운으로 가면 상관과 식신이 정관을 극하여 흉하다.

칠살운은 식신과 상관이 칠살을 극하여 좋게 된다. 인수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는, 식상운과 일간의 강한 기운이 좋다. 칠살이 있는데 식상도 있는 경우에는 식상은 일간의 기운을 약하게 하므로 일간이 기가 강한 운과 인수운과 식상운이 길하고, 인수격에 재가 있는 경우는 재를 극하여 인수를 보호해 주는 겁재운이 좋다. 재운은 인수를 극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인수격에 정관과 편관이 모두 투간한 경우에는 식상운과 인수운과 일간의 기가 강한 운이 좋다. 관살이 투간한 사주에 재운으로 가면 나쁘다. 인수격에 식상이 있는데 인수가 약하다면 식상이 재를 생하고 재가 인수를 극하여 나쁘니 식상운과 재운이 안 좋다.

인수는 일간을 생하는 것을 좋아하고 정인격과 편인격이 좋은 격이다. 재성과 인수는 정과 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격으로 한다. 인수의 격국은 하나가 아니다. 인수격에 정관이 투간한 경우는 정관이 혼자 인수를 생할 수 없다. 정관이 용신이 될 수 있다. 정관은 인수를 생하는 것을 좋아하며, 용신이 된다. 일간의 기가 왕하고 인수가 많으면, 걱정하지 않고 관성이 깨끗하면 된다. 예를 들어 丙寅, 戊戌, 辛酉, 戊子와 같은 장참정(張參政)의 사주이다. 56)

56)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271. 印綬喜其生身, 正偏同爲美格, 故財與印不分偏正, 同爲一格而論之。 印綬之格局亦不一, 有印而透官者, 正官不獨取其生印, 而卽可以爲用。 故身旺印強, 只要官星清純。

다음의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인수격의 예시 명조로서 장참정의 사주이다. 장참정의 사주로 인수격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자평진전』 張參政의 인수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辛	戊	丙	乾命
子	酉	戌	寅	
甲	癸	壬	辛	庚己
辰	卯	寅	丑	子亥

辛金 일간의 戊土월의 정인격으로, 운에서 편관 午火가 오면 년지의 寅木과 합하여 寅午戌 삼합의 火局이 되어 인수격이 관격으로 바뀌게 된다. 월천간의 정인 戊土와 년천간의 정관 丙火를 봐서 정관과 인수가 서로 도와주는 관인상생이 되었다. 월천간과 시천간의 戊土는 癸卯대운에서 癸水가 운에서 정인 戊土를 합하여 하나의 정인만 남아있어 성격이 되었다.

앞에서 말한 인수격에 대해 『자평진전』에 나오는 주상서와 임회후(臨淮候)의 예시명조를 실제로 해석해 보기로 하겠다.

『자평진전』 朱尙書의 예시명조					『자평진전』 臨淮候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시	일	월	년	
壬	辛	戊	丙		壬	丁	己	乙	
辰	未	戌	戌		寅	酉	卯	亥	

『자평진전』의 인수격에서 주상서(朱尙書)의 사주는, 辛金 일간에 월지 戌월의 정인격의 사주로 월간의 戊土를 봐서 정인격이 되었다. 년천간의 丙火 정관과 戊土의 정관과 인성이 상생하여 관인상생이 되었다. 시천간의 상관 壬水가 년천간의 정관 丙火를 극하려 하나 정인 戊土에 가로막혀 성격이 되었다. 이런 사주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배운 바탕에 능력을 펼쳐서 높은 직위를 얻게 된다.

또, 임회후의 사주는 丁火일간에 월지가 卯월, 년지의 亥水와 합하여 亥卯木 반합이 되어 인수격이 커졌다. 월천간의 식신 己土가 정관 壬水를 극하려 하나, 년천간의 정인 乙木 용신이 식신 己土를 극하니 정관의 피해가 없게 되어서 직위가 안정되어 성격이 되었다.

칠살을 사용하는데 식신과 상관을 겸하는 경우가 있다. 칠살을 사용하는데 극하고 합하거나, 일간을 생하고 설기함이 있다면 인수가 많은 것을 따지지 않고, 모두 귀격이다. 예를 들어 乙丑, 辛巳, 己巳, 庚午와 같은 손포정(孫布政)의 사주가 그렇다.⁵⁷⁾

다음의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정인격의 예시명조로 손포정의 사주이다. 손포정의 사주로 인수격을 알아보겠다.

『자평진전』 孫布政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己	辛	乙
午	巳	巳	丑

예문명조 손포정의 사주는 己土 일천간이 巳월에 태어나 정인격이 되었다. 년지의 비견 丑土와 운에서 식신 酉金이 오게 되면 월지 巳火가 巳酉丑 삼합을 하여 식신, 상관격으로 격이 변하였다. 월천간의 식신 辛金이 년천간의 乙木 칠살

57)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274. 참고.

을 극하고 있으니 성격이 되었으나 식상혼잡으로 인해 격의 품격이 떨어진다. 계속해서 인수격의 또 다른 경우를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예시 명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인수가 많고 재성이 약할지라도 식상이 겹쳐서 노출되면, 재성과 식상이 서로 생해서 가벼우나 가볍지 않은 것이라서, 부를 이룰 수는 있으나 귀하지 않다. 그러나 식신을 보고도 귀한 경우도 있으니, 무엇인가? 그것은 庚寅, 乙酉, 癸亥, 丙辰의 우감부(牛監簿) 사주로, 乙木이 庚金을 합하여 丙火를 생하지 않기 때문에 귀격이 되었다. 만약 재성을 합하고 식신을 있다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己未, 甲戌, 辛未, 癸巳는, 재성을 합하고 식신을 보존하여 좋게 되었다.⁵⁸⁾

다음의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인수격의 예시명조로 인수격에 대해 알아보겠다.

『자평진전』 牛監簿의 예시명조	『자평진전』 인수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시 일 월 년
丙 癸 乙 庚	癸 辛 甲 己
辰 亥 酉 寅	巳 未 戌 未

58)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276. 卽或印重財輕而兼露傷食, 財與食相生, 輕而不輕, 卽可就富, 亦不貴矣. 然亦有帶食而貴者, 何也, 如庚寅, 乙酉, 癸亥, 丙辰, 此牛監簿命, 乙合庚而不生癸, 所以爲貴, 若合財存食, 又可類推矣. 如己未, 甲戌, 辛未, 癸巳, 此合財存食之貴也.

『자평진전』 인수격의 우감부의 사주는 癸水일간의 酉월에 태어나 편인격이다. 월천간의 식신 乙木이 있고 시천간의 정재 丙火가 있다. 년천간의 정인 庚金과 월천간의 식신 乙木이 합하여 乙木이 정재 丙火를 생하지 않아 성격이 되었다. 『자평진전』 또 다른 인수격의 예시사주는 辛金일간이 월지 戌土를 보고 월천간 甲木이 투출하여 정재격이 되었다. 월천간에 정재 甲木을 보았으나, 년천간의 편인 己土가 정재 甲木을 합하고 시천간의 식신 癸水를 남겨놓아 귀하게 되었다.

『연해자평』에서는 인수는 재성을 좋아하지 않아 사주나 운에서 편관의 운으로 가면 좋아 진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편관은 인수를 생할 수 있으며 인수는 재성을 무서워하는데 재성은 인수를 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수는 일간을 생하는 기운이다. 양이 음을 보고 음이 양을 보면 정인이라 하고 양이 양을 보고 음이 음을 보는 것을 편인이라 한다.

관성이 인수를 생하는 것을 좋아하나 재성의 힘이 강하여 인수를 극하는 것을 꺼린다. 예를 들어 甲木일간이면 亥子월 水가 인수인데 상관인 火를 꺼리고 재성인 土가 인수를 극하는 것을 싫어한다. 생왕지로 행해야 하고 사절지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일간이 인수를 보면 관성을 보았을 때 관인양전(官印兩全)이 되어 귀하게 된다. 관성이 이루어졌을지라도 부모 즉 인수의 조력을 얻으면 좋은 운이 된다. 그러나 관성이 용신인데 천간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인수를 취하게 되면 재운이 왔을 때 극을 당하게 되어 좋지 않다. 또한 사주나 년운에서 재가 와서 인수를 손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인수를 손상하면 가정이 깨지고 고향을 떠난다.

辰, 戌, 丑, 未, 사절지(死絕地)에 임할 경우 직위가 강등되거나 실직하며 일찍 사망할 수 있다. 인수격은 사주 내에 관성이 있어야 좋으며, 월천간에 인수가 최고로 좋고 관인운으로 가면 빠르게 발전한다. 재운을 보면 인수를 파괴하므로 재성이 인수를 극하는 탐재괴인이 되어 이롭지 않으며 세운 역시 그렇다.⁵⁹⁾

인수격의 성패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59)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139. 此格大要生旺, 忌死絕, 要四柱中有官星爲妙; 月上印綬最緊. 行官印運便發. 見財運破印, 反爲貪財壞印, 不利也; 歲運亦然.

<표 4> 『자평진전』 인수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印	七殺, 食神, 傷官
財	正官	七殺
印	七殺, 正官	財
食神	七殺	正官, 財
傷官	七殺	正官, 財
殺	印, 食神, 傷官	正官, 財

※ 인수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인수가 오면 성격이 되고 칠살과 식신과 상관이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5) 식신격

① 식신격의 기본적 특성

식신은 일간을 설기하는 것으로 성격이 낙천적이고 온후하며 사회적으로 원만하게 처세하고 베풀고 보호하고 도와주는 길신이다. 비겁으로부터 생을 받으며, 재를 생하며 관살을 극하고 인수로부터 극을 받는다. 식신은 길신이지만 일간의 힘을 빼앗는 기운으로 상관과 같다. 상관은 인수로부터 극을 당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식신은 인수를 만나 극을 당하면 좋지 않다. 식신은 의식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복과 연관이 있기에 극을 당하면 안좋다.

식신격은 일간의 기운을 빼앗는 것에 속하지만, 정재를 생활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식신이 재를 생하는 것으로 식신생재격(食神生財格)은 좋은 격이다.

식신이라 하는 것은, 丙火는 나의 재성인 戊土를 생하고 甲木은 丙火가 생한 戊土 재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식신이라 한다.⁶⁰⁾ 사주 중에 식신이 있는 사람은 재물이 많고 식복이 넉넉하다. 식신은 관성을 극하기 때문에, 관성을 좋아하지 않고 식신이 편인을 만나면 도식이 되어 식신이 편인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식신은 재와 상생함을 좋아한다. 그러나 식신이 많으면 좋지 않으며, 식신이 일간의 기운이 왕함을 좋아하나 인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식신을 극하거나 있을 때는 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에서 식신을 보면 복을 얻는다.

『삼명통회』에서는 일간의 기가 왕함을 좋아하고 재의 운으로 가면 좋다. 일간이 약한 것과 재성을 극할 수 있는 비견은 좋지 않다. 식신이란 일간에 생한 순서로 하면 세 번째 위치라 甲木은 丙火가, 乙木은 丁火가 식신이다. 甲木은 丙火를 생하여 기운이 약화되고 丙火가 戊土를 생하고, 戊土는 甲木의 편재로 된다. 편재는 하늘의 녹으로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물이다.⁶¹⁾ 라고 했다.

다음의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식신격의 예시명조로 양승상 사주이다. 양승상의 사주로 식신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자평진전』 梁承相의 식신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戊 壬 己 乾命
申 子 申 未
丙 丁 戊 己 庚 辛
寅 卯 辰 巳 午 未

60)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111. 食神者, 生我財神之謂也, 如甲屬木, 丙屬火, 名盜氣, 故謂之, 食神. 何也. 殊不知丙能生我戊土中食丙之戊財, 故以此名之也.

61) 萬民英 原著, 『三命通會』, 育林出版社, 2013, p.276. 食神者, 日幹所生順數第三位, 乃甲食丙, 乙食丁之例. 甲生丙爲洩氣, 丙生戊爲甲偏財, 偏財是天祿自然之財.

앞에 있는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의 식신격 사주이다. 일간은 戊土로서 기가 강하고 식신이 뿌리가 있고 재성이 월천간에 투간하여 귀한 격이 되었다. 예를 들어 丁未, 癸卯, 癸亥, 癸丑과 같은 양승상(梁丞相)의 사주이다.

戊土 일간에 월지 申金 식신격이 일지 子水와 합하여 재격으로 변경이 되었다. 년천간의 己土 겁재가 월천간의 壬水를 극하고 시천간의 식신 庚金을 생한다. 년지의 未土가 일간의 근이 되어 식신격에 재를 생하여 성격이 되었다.

재성을 쓰지 않고 칠살과 인수를 따르면, 큰 공을 세우게 되어 권력을 권다. 예를 들어 辛卯, 辛卯, 癸酉, 己未와 같은 상국공(常國公)의 사주가 이것이다. 인수는 없고 천간에 편관만 투간할 경우, 재성이 없기만 하면 귀하다. 예를 들면 戊戌, 壬子, 丙子, 戊戌과 같은 호회원(胡會元)의 사주이다.⁶²⁾

다음의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식신격의 예시명조로 상국공(常國公) 사주이다. 상국공의 사주로 식신격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자평진전』 常國公의 식신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己	癸	辛	辛	乾命
未	酉	卯	卯	

癸水일간이 卯월생 식신격으로 천간에 재를 쓰지 않고 칠살 己土와 편인 辛金을 보아 칠살이 인수를 만나서 상생하게 되었다. 식신이 천간에 투간 될 때 식

62)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291. 若不用財而就殺印, 最爲威權顯赫. 如辛卯, 辛卯, 癸酉, 己未, 常國公命是也. 若無印綬而單露偏官, 只要無財, 亦爲貴格, 如戊戌, 壬戌, 丙子, 戊戌, 胡會元命是也.

신 용신이 극을 당하는 단점도 있지만 재를 보지 않아 좋게 되었다.

이 사주는 월령인 卯월의 용신을 쓸 수 없는 단점이 있지만 천간 편인 辛金이 시천간의 己土 편관의 생을 받아 성격이 되었다.

다음의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식신격의 예시명조로 호회원(胡會元) 사주이다. 호회원의 사주로 식신격에 대해 살펴보겠다.

『자평진전』 胡會元의 식신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丙 壬 戊 乾命

戊 子 戊 戊

戊 丁 丙 乙 甲 癸

戊 卯 寅 丑 子 亥

丙火일간에 월지 戊土 식신격으로 년천간의 식신 戊土와 시천간의 戊土가 용신이다. 식신 戊土가 칠살 壬水를 극하여 식신제살이 되어 성격이 되었다.

식신만을 쓰면 식신이 유력한 기운이 되어야 한다. 재운이 있으면 부유하나, 재운이 없으면 가난하다. 식신격에 칠살이 투간하면 재성을 보는 것은 꺼리지만, 재성이 앞에 있고 칠살이 뒤에 있는데 식신으로 가로막으면, 재성이 칠살을 생할 수 없으니 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제태(劉提台)와 같은 사주로 癸酉, 辛酉, 己卯, 乙亥가 이것이다.⁶³⁾

63)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292. 至若單用食神, 作食神有氣, 有財運則富, 無財運則貧. 至若食神透煞, 本忌見財, 而財先煞後, 食以間之, 而財不能黨煞, 亦可就貴. 如劉提台命, 癸酉辛酉己卯乙亥是也.

다음의 예시명조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식신격의 예시명조로 유제태 사주이다. 유제태의 사주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자평진전』 劉提台의 식신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乙	己	辛	癸	乾命
亥	卯	酉	酉	
乙	丙	丁	戊	己
卯	辰	巳	午	未
				申

己土 일간이 酉월생으로 식신격 사주이다. 월천간에 식신 辛金을 용신으로 보았으며, 시천간의 辛金이 편관 乙木을 극하고 있으며 년천간의 편재 癸水를 생하고 있다. 이 사주는 식신격에 칠살과 재를 겸할 수 있으나, 정인 丙火가 천간에 투간될 때마다 편재 癸水가 편관 乙木을 생하게 되어 건강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 식신격의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전』을 보면 식신격이 운을 취하는 방법은, 년지와 월지가 합이 되어 식신격이 되거나 월지와 시지가 합이 되어 식신의 국을 이루어 식신격이 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운을 본다. 식신이 재를 봐서 생하는 식신생재의 국에서 재가 많고 식신이 적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행위가 늦을 수 있다. 그래서 운의 흐름은 식신의 약한 기를 도와 식신의 운으로 가야 좋다. 그러나 재와 식신, 상관이 많다면 재와 식신, 상관을 극하는 운으로 가야 좋다. 정관운은 식신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식신격에 칠살과 인수를 함께 쓰는 사주는 인수운을 좋아

하고 인수를 극하는 재운은 나쁘다. 일간의 기가 왕하면 일간의 왕성한 기를 쓸 수 있는 식신과 상관운이 좋고 일간의 기가 강하면 관살운도 좋다. 식신격이 칠살을 대하는 식신대살(食神帶殺)의 사주는 칠살이 인수를 생하는 인수운이 좋고, 일간의 기가 강한 운과 식신, 상관운이 좋다. 반대로 재운은 칠살을 생하기 때문에 가장 나쁘다. 식신이 많고 칠살이 약하다면 칠살을 극하지 않고 칠살이 인수를 생하는 인수운이 좋고, 재운도 좋다. 식신이 크게 왕하고 인수가 있는 경우는 인수가 식신을 극하는 것을 재가 보호하기 때문에 재운이 좋고, 식신을 도와주는 식상운도 좋다. 식신격은 인수운이 좋지 않고 정관운도 나쁘다. 식신격에 인수가 있는데 재가 투간하면 재가 인수를 극하여 식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재운이 길하고 식상운도 길하다.

식신을 용신으로 취할 경우에도 인수를 보면 인수가 식신을 극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 도식이란 인수가 식신을 극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甲木 일간은 壬水가 편인이며 보는 것이다. 甲은 丙火가 식신이 된다. 그러나 壬水가 丙火를 극해 丙火가 甲木의 土인 재를 생하지 못하게 한다. 이같이 甲木이 식신 丙火를 용신으로 취할 경우 편인 壬水는 도식이 되어 좋지 않다. 사주에서 식신이 도식을 보면 복이 천하고 수명이 적게 된다.⁶⁴⁾고 했다.

<표 5>는 식신격의 성패에 대해 정리한 도표이다.

64)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p.111~112. 夫倒食者, 用財神大忌見之, 用食神亦忌見之. 倒食者, 如甲見壬之類. 如甲見丙爲食神, 能生土財; 然壬剋丙火, 丙火不能生甲木之土財, 所謂甲用食神, 大忌見之. 凡命中帶此二者, 主福淺壽薄.

<표 5> 『자평진전』 식신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財	七殺, 傷官
財	正官	七殺, 比劫
印	七殺, 正官	財
食神	財, 七殺	正官, 印
傷官	財, 七殺	正官
殺	食神, 傷官, 劫財	財

※ 식신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재가 오면 성격이 되고 칠살과 상관이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6) 상관격

① 상관격의 기본적 특성

상관은 귀한 길신인 정관을 상하게 해서 상관이라고 한다. 상관은 재주가 많으나 기상이 높아서 사람을 무시하고 안하무인(眼下無人)하므로 귀인은 꺼리고 평범한 사람은 싫어한다.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좋지 않다. 길신이 와도 병이 생겨 몸을 손상하게 된다. 또한 운에서 소송에 휘말린다. 관이 약한 운으로 가고 사주에 재성이 약하면 좋다. 상관의 사주는 자세히 풀이해야 실수가 없다.⁶⁵⁾

65)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113. 傷官者, 其驗如神. 傷官務要傷盡; 傷之不盡, 官來乘旺, 其禍不可勝言. 傷官見官, 爲禍百端. 倘月令在傷官之位, 及四柱配合, 作事皆在傷官之處; 又行身旺鄉, 眞貴人也. 傷官主人多才藝, 傲物氣高, 常以天下之人不如

상관은 길신이 아닐지라도 실제로는 빼어난 기운이다. 그래서 문인과 학자가 상관격을 얻은 사람 가운데 많다. 여름의 木이 水를 보고 겨울의 金이 火를 보면 출중하다. 木과 金의 격국은 다른 격에 비하여 많으며, 변화도 많다. 월지의 기후를 보고, 일간의 강약을 헤아려 길함과 꺼림을 살피고, 격의 순수함과 잡됨을 관찰해야 한다. 木과 金의 일간은 조후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⁶⁶⁾

『연해자평』에서, 상관은 신속성과 변화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상관은 재와 칠살을 봐야 한다. 상관과 정관이 만나면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상관견관(傷官見官)이 되어 크게 흉하다. 백가지의 화가 온다. 그러나 월지에 상관이 있고 천간에 상관이 있을 경우 운이 일간의 기운이 강하면 귀한 사람이 된다. 상관은 내가 생하는 것을 말한다.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양이 음을 보고 음이 양을 보는 상관은 나쁜 기운이다. 상관은 극을 하거나 합을 해야 한다. 甲木은 辛金이 정관이다. 丁火의 기운이 강하면 재인 土를 생할 수 있으나 정관을 보는 것은 나쁘고 일간의 기운이 강해야 한다.

상관이 극이 되거나 합이 되지 않고 사주에 정관을 만나고 세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크게 나쁘다. 상관격일 때, 천간과 지지의 세운에서 정관을 만나지 않아야 하며 정관을 보면 상관견관이라 하여 어려움이 백가지로 나오게 된다. 상관격국을 쓰게 되면 재성을 보아야 좋다.⁶⁷⁾

상관은 칠살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흉신으로 재를 생하거나, 칠살을 제어하는

己；而貴人亦憚之，衆人亦惡之。運一逢官，禍不可言；或有吉神可解，必生惡疾以殘其軀；不然運遭官事。如運行剝官，財神不旺，皆是安享之人。仔細推詳，萬無一失矣。

66) 沈孝瞻 原著，徐樂吾 評註，앞의 책，p.320. 傷官雖非吉神，實爲秀氣，故文人學士，多於傷官格內得之。而夏木見水，冬金見火，則又爲秀之尤秀者也。其中格局比他格多，變化尤多，在查其氣候，量其強弱，審其喜忌，觀其純雜。

67) 앞의 책，p.113. 又雲，傷官者，我生彼之謂也；以陽見陰，陰見陽，亦名盜氣。印綬若傷盡，不留一點；身弱忌官星，不怕七殺。如甲用辛官，如丁火旺，能生土財；最忌見官星，亦要身旺。若傷官不盡，四柱有官星露；歲運若見官星，其禍不可勝言。若傷官傷盡，四柱不留一點；又行旺運及印綬運，卻爲貴也。如用傷官格者，支幹，歲運，都要不見官星，如見官星，謂之傷官見官，爲禍百端。用傷官格局，見財方可用。

경우가 아니면, 합하고 극해야 할 기운이다. 흉신이지만 길신인 재를 생하거나, 칠살을 대립해 공을 세운다.

② 상관격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전』에서 상관격의 운을 취하는 경우는 월지 상관격에서 년지, 월지가 합을 하여 상관격의 국이 됨을 살펴본 후에 풀이한다. 상관이 재를 용신으로 쓰는 상관용재(傷官用財)에서 재가 왕하면, 일간의 기가 약한 재왕신경(財旺身輕)이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일간의 기운을 도와주는 인수운과 비겁운이 좋다. 반대로 비겁이 많아 일간이 왕하고 재가 약한 신강재천(身強財淺)이 된다면 재를 도와주는 재운이 좋고 재를 생해주는 상관운이 좋다. 또한 상관이 인수를 본 상관패인(傷官佩印)은 인수를 생해주는 관살운이 좋고 인수운이 좋다. 상관패인은 인수를 상신으로 쓰는데 재운이 와서 재가 인수를 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상관격에 재와 인수를 겸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가 많고 인수가 있으면 인수를 돕는 운이 살과 인수를 사용하는 인수운이 좋다.

식신과 상관운인데 정관이 같이 있다면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에 길하지 못하다. 상관격에 칠살이 있는 상관대살(傷官帶殺)은 상관을 극해주는 인수가 좋고 재는 나쁘다. 그러나 상관이 많고 칠살이 약하면 칠살을 생하는 인수운과 재운이 모두 좋다. 그러나 상관의 뿌리가 강한 상관용관(傷官用官)의 사주는 상관을 극하는 인수운이 좋고, 식신, 상관운이 좋지 않다. 만약 사주에 정관이 투간되고 재와 인수가 왕하다면, 인수는 비겁을 생하고 비겁은 재를 극하기 때문에 비겁운과 상관운은 좋지 않다. 다음은 상관격의 예시 명조이다.

상관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丁 甲 庚 甲 乾命

卯 午 午 寅

예시명조를 보면 甲木 일간이 午월의 상관격이다. 월지에서 투간한 시천간의 丁火가 있다. 甲木일간이 년지의 寅木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힘이 있다. 월천간의 庚金칠살을 시천간의 상관 丁火가 극하고 있다. 또한 상관격이 재를 용신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계속해서 상관격이 재를 용신으로 하는 경우를 예시명조를 통해 알아보겠다.

『자평진전』 史春芳의 상관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戊 己 壬 乾命

申 午 酉 午

乙 甲 癸 壬 辛 庚

卯 寅 丑 子 亥 戌

예시명조 사춘방(史春芳)의 사주를 보면 戊土 일간이 酉월생으로 상관격이다. 월지 속의 庚金, 辛金이 투간된 시천간의 식신 庚金이 용신이다. 월천간의 겁재 己土가 시천간의 식신 庚金을 생하며 식신 庚金은 년천간의 재성 壬水를 생하게 되었다. 일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일지 午火는 12운성 지지의 왕성한 세력인 왕지(旺地)라 일간의 뿌리가 힘이 있다. 그러나 세운의 子水와 대운의 子水를 만나 午火를 충하면 일지의 배우자 자리가 충이 되어 안 좋다. 甲寅대운은 상관격

이 칠살을 만나 木의 칠살을 극하는 시기이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가 되겠다. 乙卯대운은 상관이 정관을 만나 정관을 합하니 상관견관이 되어 직위나 직책에서 크게 패하겠다.

상관격이 재와 인수를 함께 쓰는 경우가 있다. 재성과 인수는 서로 극하여 함께 쓰지 않으나, 천간에서 둘 다 깨끗하고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68)

상관격이 재와 인수를 함께 쓰는 경우를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도통제나 일승상의 사주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자평진전』 都統制의 예시명조	『자평진전』 一丞相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시 일 월 년
壬 戊 己 丁	丁 戊 己 壬
子 子 酉 酉	巳 午 酉 戌

예시명조 도통제(都統制)의 사주를 보면 戊土 일간이 酉월생으로 상관격이다. 戊土 일간이 뿌리가 없어 일간의 기가 약한 상태이다. 상관격이 성격이 되는 조건은 칠살을 만나 칠살을 극하거나 상관인 재를 봐서 상관인 재성을 생하는 경우로 상관의 할 일이 있어야 성격이 된다. 시천간의 편재 壬水를 봐서 성격이 되었다. 월천간의 己土에 의해 정재 壬水가 극을 당하게 되는 사주이다.

다음은 일승상의 사주는 戊土 일간이 酉월생의 상관격으로 년지가 戊土로 비견이 되어 뿌리를 두어 일간이 힘이 있으나, 년천간에 편재 壬水가 월천간의 己土에 의해 편재 壬水가 극을 당하였다. 상관인 재를 용신으로 써야 하는데, 용신인 壬水를 겁재에 의해서 극을 당하여 정인 丁火만 남게 되었다. 시천간의 丁火는 정인으로서 배운 바탕에 상관으로 능력을 펼치는 것을 말한다.

68)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321. 有傷官兼用財印者, 財印相剋, 本不並用, 只要干頭兩清而不相礙.

다음의 <표 6>은 상관격의 성패에 대한 내용이다.

<표 6> 『자평진전』 상관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財, 印	七殺, 傷官
財	正官, 印	七殺, 比劫
印	七殺, 正官	財
食神	財, 七殺	正官, 傷官
傷官	財, 七殺	正官, 比劫
殺	印	財, 正官

※ 상관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재와 인수가 오면 성격이 되고 칠살과 상관이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2) 잡격과 그 외의 격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

1) 양인격(陽刃格)

① 양인격의 기본적 특성

양인(陽刃)은 겁재(劫財)이다. 양인겁재(陽刃劫財)가 정상적인 호칭이지만 줄여서 양인이라 부른다. 일간이 다섯 가지 양의 기운인 甲, 丙, 戊, 庚, 壬 오양간(五陽干)일 때 양인이다. 겁재에 비하여 재를 겁탈하는 작용이 대단히 강하다. 그래서 양인은 4흉신에 포함되는데, 정관이나 칠살로 극해야 좋다.

양인이라는 것은 일간의 정재를 빼앗는 신으로 정재의 칠살인 신이다. 일간의 겁재로 5양간에만 있으므로 양인이다. 겁(劫)이라 말하지 않고 인(刃)이라고 말하는 것은 빼앗김이 심하기 때문이다. 양인은 극하고 합해야 한다. 관성과 칠살은 모두 마땅하다. 재성과 인수가 서로 따르면 귀함이 나타난다. 69)

『연해자평』에서는, 양인은 흉신으로 본다. 사람에게 나쁜 살기로서 작용하며 일간의 뿌리로 강한 기운이다. 예를 들면 ‘甲木의 근은 寅木에 있는데 卯木이 양인이 된다.’ 양인은 칠살과 인수를 좋아한다. 양인(羊刃)은 5양간으로 甲, 丙, 戊, 庚, 壬 이고 卯, 午, 午, 酉, 子 5음은 양인(陽刃)이라 한다.

69)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2012, p.321. 陽刃者, 劫我正財之神, 乃正財之七殺也. 祿前一位, 惟五陽有之, 故爲旭刃. 不曰劫而曰刃, 劫之甚也, 刃宜伏制, 官殺皆宜, 財印相隨, 尤爲貴顯.

② 양인격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전』을 보면, 양인격 운을 취하는 경우, 양인격에 정관이 있는 양인용관(陽刃用官)은 정관을 돕는 운이 좋다. 그러나 사주 원국에서 정관이 뿌리가 깊어 강하다면 인수운과 비겁운이 좋다. 식신과 상관운은 정관을 합하므로 좋지 않다. 또 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양인용살(陽刃用殺)의 경우 칠살이 강하지 않으면 재운이 와서 칠살을 도와야 한다. 그러나 칠살이 너무 강하다면 일간의 기가 강한 운과 인수운이 좋고, 식신, 상관운도 좋다. 양인격에 관살이 모두 투간하면 관이 양인을 극하는 거관(去官)이 되거나 양인과 칠살이 합하는 거살(去殺)이 되거나 극하고 합하는 운 모두 좋은 운이 된다. 일간의 기가 강한 운은 유리하고 재관운은 불리하다.

사주 중에 양인이 있을 때, 흉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양인과 칠살이 서로 비슷하여 양인이 있는 사람은 부귀한 사람이 되는데, 편재와 칠살을 좋아한다. 칠살은 양인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고 양인은 칠살이 없으면 위엄이 없다. 양인과 칠살이 모두 온전한 사람은 평범하지 않다. 70)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예시명조를 통해 양인격의 사주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양인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甲	癸	丁	坤命
午	申	卯	巳	

70) 徐升 原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p.103. 故名陽刃如命中有刃, 不可便言凶, 大率與七殺相似凡有刃者, 多主富貴人; 卻喜偏財七殺「殺無刃不顯, 刃無殺不威」刃殺俱全.

예시명조는 甲木 일간에 卯월의 양인격이다. 월천간의 정인 癸水가 년천간의 상관 丁火를 극한다. 시천간의 칠살 庚金을 월지 卯월의 양인이 칠살과 합하는 양인용살(陽刃用殺)이 되었다. 4대 흉신인 양인이 흉신 칠살을 합하여 사주가 좋게 되었다. 다음은 목동지 사주를 통해 양인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평진전』 穆同知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庚	癸	甲
寅	寅	酉	午

『자평진전』의 예시명조인 목동지(穆同知)의 사주는 일간 庚金에 월지 酉金의 양인격으로 시천간의 편인 戊土와 월천간의 상관 癸水와 합한다. 그래서 양인격의 상신인 정관 丁火이 투간할 때 상관 癸水가 극하는 것을 편인 戊土가 차단하여, 년천간의 편재 甲木만 남게 된다. 편재 甲木만 남게 되면 편재 甲木을 보호해줄 상신이 없어서 월지 酉金 양인이 천간에 투간할 때 편재 甲木을 극하게 되어 나쁘게 된다.

관살이 양인을 극하고 합하는 때는, 상관과 식신을 보아도 귀한 경우가 있다. 癸水가 寅木과 午火의 관성을 극하나 戊土가 합한다. 예를 들어 사주가 甲午, 癸酉, 庚寅, 戊寅이라면, ‘인수가 상관을 보호 한다’는 것이다.

또 관살이 혼잡되었을 때 정관을 제거하고 칠살을 남겨두어야 운이 좋게 된다. 甲寅, 庚午, 戊申, 甲寅이다. 칠살이 두 개 투간하고 뿌리가 많으니, 식신으로서 칠살을 극하고 ‘재단하고 손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丙戌, 丁酉, 庚申, 壬午는, 관성과 칠살이 앞 다투어 나왔으나 壬水가 丁火 관성을 합치니, 칠살이 깨끗하고 혼잡하지 않다. ‘양인격은 칠살을 남겨두어야 유리하니, 깨끗함을 취한다’는 것이다.⁷¹⁾

71)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進源書局, 2012, pp.339~340. 然亦有官殺制刃帶傷食而

다음은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양인격의 예시 명조인 가평장의 사주이다.

『자평진전』 賈平章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甲	戊	庚	甲
寅	申	午	寅

가평장(賈平章)의 사주는 戊土 일간에 午월의 양인격이다. 월간의 식신 庚金이 년 천간과 시천간 편관 甲木을 극하고 합하니 이것을 재단하고 손상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양인격이 재를 쓰는 경우로 이 경우도 『자평진전』에 자세히 나와 있다.

양인격이 재를 쓰면 좋은 격이 아니다. 재의 뿌리가 깊어서 식신을 쓰고, 양인을 돌려 재성을 생하면, 건록 월겁격에 비교가 되지 않을지라도, 귀(貴)를 취할 수 있고 또한 부(富)도 성취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인과 재성이 서로 싸워 국(局)을 이루지 못한다.⁷²⁾

貴者, 何也, 或是印護, 或是殺太重而裁損之, 官殺輕而取清之, 如穆同知命, 甲午, 癸酉, 庚寅, 戊寅, 癸水傷寅午之官, 而戊以合之, 所謂印護也, 如賈平章命, 甲寅, 庚午, 戊申, 甲寅, 殺兩透而根太重, 食以制之, 所謂裁損也. 如丙戌, 丁酉, 庚申, 壬午, 官殺競出, 而壬合丁官, 殺純而不雜. 況陽刃之格, 利於留殺, 所謂取清也.

72)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進源書局, 2012, p.342. 更若陽刃用財, 格所不喜, 然財根深而用傷食, 以轉刃生財, 雖不比建祿月劫, 可以取貴, 亦可就富. 不然, 則刃與財相搏, 不成局矣.

다음은 또 다른 양인격의 예시 명조이다.

양인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丙	甲	己	庚
寅	午	卯	子

이 사주는 甲木일간이 卯월의 양인격이다. 년천간의 칠살 庚金을 월천간의 己土가 생하였으나 시천간의 식신 丙火가 제어하고 양인겁재 乙木이 투간 될 때 칠살과 합하니 성격이 되었다. 양인격이 관성을 쓰면 운이 관성을 돕는 것이 좋다. 사주 가운데 관성의 뿌리가 깊으면 인수의 방향이나 비겁의 방향이 반대로 좋은 운이다. 다만 식신과 상관이 관성을 합하는 것은 좋지 않다.⁷³⁾ 양인격이 칠살을 쓸 경우, 칠살이 왕하지 않으면 운이 칠살을 돕는 것을 좋아 한다. 칠살이 많으면 반대로 운이 일간이 왕한 방향과 인수운이 좋다. 또한 식신과 상관운도 꺼리지 않는다. 만약 양인격에 관성과 칠살이 함께 투간하면 관을 제거하거나 살을 제거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운이 재운을 좋아하고 일간이 왕한 방향의 운도 유리하다. 하지만 지지에 재나 관의 방향은 반대로 안 좋다. 시지에 정관운이 오면 寅木과 일지의 午火가 합하여 火국을 이루어 식상이 되어 정관 酉金을 극하게 되어 나쁘고, 월지의 卯木과 卯酉충이 되어 뿌리가 상하기 때문이다. 재운은 양인겁재에게 극을 당하기 때문에 나쁘다.

73)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進源書局, 2012, p.343. 陽刃用官, 則運喜助官, 然命中官星根深, 則印綬比劫之方, 反爲美運, 但不喜傷食合官耳.

<표 7>은 양인격의 성패를 정리한 내용이다.

<표 7> 양인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財	食神, 傷官
財	正官, 七殺	比劫
印	없음	印
食神	財	財
傷官	財	食神, 傷官
殺	財	正官, 財

※ 양인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재가 오면 성격이 되고 식신과 상관이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2. 잡격과 그 외의 격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

1) 건록격(建綠格), 월겁격(月劫格)

① 건록격과 월겁격의 기본적 특성

건록이라는 것은 일간과 음양, 오행이 같은 지지가 월지에 있는 것으로 일간의 뿌리라고 한다. 일간의 뿌리가 되는 비견과 겁재가 투간하면 용신을 삼을 수 없다. 비견은 상호 불가분의 유대와 사회적 생활환경 속에서 주체와 동등한 차원에 속하거나 동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모두 비견이라고 한다.⁷⁴⁾ 건록격과 월겁격은 하나의 격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 모두 간지가 투간한 것이 재와 관과 살과 식신이 있을 때 별도로 취하여 용신을 삼는다.⁷⁵⁾ 건록격이 관성을 쓰면 천간에 투간해야 좋고, 재성과 인수가 있어야 하고 관만 있고 관을 보호할 수 있는 상신이 없는 경우 고관무보(孤官無補)⁷⁶⁾는 좋지 않다. 관성을 쓰는데 인수가 보호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 庚戌, 戊子, 癸酉, 癸亥와 같은 김승상(金丞相)의 사주가 이것이다.⁷⁷⁾

74) 조명언, 『상리철학』, 명문당, 1996, p.114.

75)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346. 建祿者, 月建逢祿堂也, 祿卽是劫. 或以祿堂透出, 卽可依以用者, 非也. 故建祿與月劫, 可同一格, 不必加分, 皆以透干支, 別取財官殺食爲用.

76) 고관무보(孤官無補), 외로운 관성에 상신이 없음을 말한다.

77)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進源書局, 2012, p.347. 祿格用官, 干頭透出爲奇, 又要

예시명조는 『자평진전』 김승상(金丞相)의 사주이다. 癸水일간에 子월의 건록격이다. 월간의 정관 戊土가 비견 癸水와 합하여 시천간의 정인 庚金만 남겨 두었다. 일간이 뿌리를 내려 성격이 되었으나 정관이 합하는 운에 좋지 않다. 시천간의 비견 癸水와 월천간의 정관 戊土가 합을 해서 정관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성을 쓰는데 재성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丁酉, 丙午, 丁巳, 壬寅과 같은 이지부(李知府)의 사주가 이것이다.⁷⁸⁾

『자평진전』 金丞相의 예시명조	『자평진전』 李知府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시 일 월 년
癸 癸 戊 庚	壬 丁 丙 丁
亥 酉 子 戌	寅 巳 午 酉

이지부(李知府)의 사주는 丁火일간에 午월생으로 일간의 기가 강한 건록격이다. 월천간에 겁재 丙火를 올렸으며 년천간의 비견 丁火와 시천간의 정관 壬水가 합하여 시천간의 정관 壬水의 직위를 년천간의 비견 丁火에게 내어주고 겁재만 남겨두어 나쁘게 되었다.

② 건록격과 월겁격의 운을 취하는 경우

『자평진전』을 보면, 건록격과 월겁격의 운을 취하는 경우는 일간이 뿌리가 있으며 용신이 정관인 녹겁용관(祿劫用官)이 된다. 이때 인수가 있다면 재운이

財印相隨，不可孤官無輔。有用官而印護者，如庚戌，戊子，癸酉，癸亥，金丞相命是也。
78) 沈孝瞻 原著，徐樂吾 評註，앞의 책，進源書局，2012，p.347. 有用官而財助者，如丁酉，丙午，丁巳，壬寅，李知府命是也

종고 정관을 합하는 운은 안 좋으며 칠살이 섞여있는 운은 나쁘다. 그러니 식신 운과 상관운은 해롭지 않고 비견, 겁재운 역시 나쁘지 않다. 만약 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인수가 있어야 좋으며 정관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신,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재를 만나면 더욱 좋지만 칠살과 함께하면 좋지 않다. 건록격과 월겁격에서는 재를 쓰는데 식신과 상관이 있는 경우에는, 재성과 식상이 많다면 인수가 있어야 좋고 비겁도 좋다. 그러나 재와 식상이 약하다면 재를 도와야 하고, 인수와 비겁은 좋지 않다. 또한 칠살은 나를 극하는 흉신이기 때문에 식신과 상관이 극하면 좋으며 정관을 만나면 식신과 상관이 길신인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나쁘다.

건록격과 월겁격에 칠살을 쓰는데 식신, 상관이 있을 경우에, 식신, 상관이 강하고 칠살이 약하다면 칠살을 돕는 운으로 가야 좋다. 그러나 식신, 상관이 약하고 칠살이 많으면 식신, 상관을 돕는 운으로 가야 좋다. 그런데 칠살을 쓰는데 재가 있다면 사주에서 칠살을 합하고 식신, 상관이 남는다면 식신, 상관운으로 가야 좋고, 재운도 싫어하지 않으며, 정관이 투간해도 좋다. 이 같은 일간의 경우에는 기운이 강해지는 운이 좋다. 사주에서 재를 합하고 칠살을 남겼을 경우에는 식상으로 극하거나 합해야 한다. 칠살이 약하다면 칠살을 도와야 하며, 식상이 약하다면 식상을 돕는 운이 와야 한다.

건록격과 월겁격에서 식신과 상관을 쓰는 경우에, 재운이 가장 길하고 칠살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인수운은 좋지 않고 정관이 대운 천간에서 오는 것도 좋지 않다. 사주에서 식상이 많다면 재운이 유리하고 인수운도 꺼리지 않는다.

건록격과 월겁격에 관살이 모두 투간하면, 칠살을 합하고 정관을 남겨 놓은 합살류관(合殺留官)이나 정관이 있는데 살을 제압하는 존관제살(存官制殺)은 식상운이 좋으며, 비견, 겁재운도 좋지만 인수운과 재관운은 좋지 않다.

『자평진전』을 보면, 관성이 재성과 인수를 함께 겹쳐서 보는 경우가 있다. 일간이 강하고 정관, 재, 인수를 만나면 귀하다. 관성이 재성과 인수를 가로막아서 극하지 못하면 좋은 격이다. 예를 들어 庚午, 戊子, 癸卯, 丁巳와 같은 왕소사

(王少師)의 사주이다. 월겁격이 재성을 사용하면 비겁이 식신을 생하기 때문에 식신, 상관을 보아야 한다. 월령이 비겁이고 재성으로 용신을 잡으면 서로 극하니 식신과 상관이 비겁을 함해야 재성을 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子, 丙子, 癸丑, 壬辰과 같은 장도통(張都統)의 사주이다. 비겁으로 변하여 재성으로 삼는 것과 비겁으로 변하여 생하게 되면 좋게 된다.

『자평진전』에 있는 장도통(張都統)의 사주이다. 癸丑일간에 子월생으로 건록격이다. 월천간의 정재 丙火를 년천간의 甲木이 생해준다. 시천간의 겁재 壬水가 정재 丙火를 극하며 상관인 甲木을 생하지만 겁재가 상관을 생하여 정재 丙火를 생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己未, 己巳, 丁未, 辛丑에서 丑土와 巳火가 합하면, 겁재인 火가 金국의 재성이 크게 귀하게 되지 않으면 편안함을 얻는다. ‘비겁으로 변하여 재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자평진전』 예시사주는 丁火일간에 巳월생으로 월겁격이다. 월천간에 식신 己土을 놓고 시천간에 편재 辛金를 봐서 식신이 재를 생하는 식신생재가 되었으며, 월지의 겁재가 운에서 와도 식신을 생하게 되어 성격이 되었다.

예를 들어 고상서(高常書)의 사주는 庚子, 甲申, 庚子, 甲申이다. 월지 비견 辛金과 일지 子水가 합을 하여 수국이 되어 식상이 되어 재성을 생하게 되는 것이다.⁷⁹⁾

『자평진전』 張都統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壬 癸 丙 甲 辰 丑 子 子	『자평진전』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辛 丁 己 己 丑 未 巳 未	『자평진전』 高常書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甲 庚 甲 庚 申 子 申 子
---	--	---

79)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349. 如己未, 己巳, 丁未, 辛丑, 丑與巳會, 卽以劫財之火爲金局之財, 安得不爲大貴, 所謂化劫爲財也. 如高尙書命, 庚子, 甲申, 庚子, 甲申, 卽以劫財之金.

그리고 고상서(高常書) 사주이다. 庚金일간에 申월생으로 건록격이다. 월지 申金이 양쪽 子수와 삼합의 절반만 합하여 수국을 이루었으니 식상격으로 변하였다. 월천간에 편재 甲木을 올려, 편재격으로 변격이 되었다. 년천간의 庚金이 편재 甲木을 극하고 있으나, 식상이 투간하면 해소된다. 록겁격에 재와 관이 없으나 식신과 상관을 써서, 일간의 기운이 강함을 식신과 상관으로 빼앗아도 좋은 기운이다. 그래서 봄의 木과 가을의 金을 쓰면 귀하다. 木일간이 寅월이나 卯월 일때 천간에 丙火, 丁火를 만나면 밝게 통하게 되고 金이 水를 생하면 영리하다.

『자평진전』 張裝元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庚 庚 癸 辰 子 申 卯	『자평진전』 一平章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丙 甲 庚 辛 寅 申 寅 丑	『자평진전』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乙 甲 庚 辛 亥 辰 寅 丑
---	---	--

예시명조 중 『자평진전』에 나와 있는 장장원(張裝元) 사주를 보면, 庚金일간에 申월의 건록격이다. 월지의 申金과 일지 子수와 시지의 辰이 합쳐 申子辰 삼합水가 되어 식상격으로 변격이 되었다. 천간의 년천간의 癸水 상관을 보아 가을의 金기운이 상관을 만나 금수상함(金水相涵)이 되었다. 천간의 모든 庚金이 癸水 상관을 생하고 있으며 지지의 申子辰 水국과 함께 빠른 판단력과 시지의 편인 辰土와 어울려 배운 바탕에 천간의 년천간의 상관癸水는 재주를 말하며 그 기질로 능력을 펼치겠다.

한평장(一平章) 사주는 甲木일간에 寅월로 건록격이다. 월천간에 庚金이 칠살을 보았으나 시천간의 식신 丙火가 년천간의 辛金과 합을 하여 관살혼잡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칠살 庚金만 남겨놓았다. 이 사주는 칠살 庚金을 극하는 운에

서 발복한다.

『자평진전』의 예시사주는 甲木일간에 寅월생으로 건록격이다. 월천간에 庚金 칠살과 년천간에 정관 辛金을 올려 관살혼잡이 되었으나, 시천간의 乙木 양인겁재가 칠살 庚金과 합하여 관살혼잡에서 벗어나게 되어 성격이 되었다.

다음의 <표 8>은 월겁격의 성패에 대한 내용이다.

<표 8> 『자평진전』 월겁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財	七殺, 食神, 傷官
財	食神, 正官	比劫, 七殺
印	正官, 食神, 傷官, 比劫	財, 印
食神	七殺, 財	印
傷官	七殺, 財, 印	正官
殺	食神, 傷官, 陽刃	正官, 財

※ 월겁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재가 오면 성격이 되고 칠살과 식신과 상관인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2) 잡기격(雜氣格)

① 잡기격의 기본적 특성

잡기격이란 사주명리의 이론에서는 지지의 辰, 戌, 丑, 未 사묘(四墓)의 辰과 戌, 丑과 未는 서로 충돌하는 기운이다. 잡기는 지장간(支藏干) 속에 여러 가지 기운을 가지고 있다. 용신이 하나가 아니므로 잡기라고 한다. 辰은 戊土를 저장하고 있으면서 癸水를 저장하여 水의 창고인 수고(水庫)가 되었다. 그리고 乙木이 있어서 木의 남아 있는 기운인 여기(餘氣)가 된다. 천간에 투간한 것이 있거나 지지에서 합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예를 들어 甲木이 辰월에 생하고 천간에 지장간 戊土가 있으면 편재를 용신으로 삼는다. 癸水가 천간에 있으면 정인을 용신으로 삼는다. 乙木이 천간에 있으면 乙木을 월겁으로 보는 것이다. 천간에 戊土와 癸水가 있으면 戊土를 용신으로 삼는다.

또 甲木이 辰월에 생하고 지지에서 申과 子를 얻어 申子辰 水국을 이루면 水를 용신으로 삼는다. 하나만 투간하면 하나만 용신으로 삼고 두 개, 세 개가 투간하면 겹쳐서 용신으로 한다. 그러나 배합이 좋은 기운이 서로 상생할 때 유정(有情)하면 길하고, 배합하는 기운이 서로 상생하지 않을 때는 무정(無情)하여 좋지 않다. 예를 들어 甲木 일간이 辰월이면 천간에 癸水가 투간하거나 또는 지지에서 子 혹은 申을 만나서 국을 이루면 인수격이 성격이 된다. 이런 경우를 깨끗하다고 하며, 천간에 투간하고 지지에서 크게 합이 되어 유정하다.

그리고 丙火 일간이 辰월에 생하여 癸水가 투간하면 정관격인데 다시 乙木까지 투간하면 인수격을 겹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고 乙木 인수가 辰土 속의 지장간 戊土를 극하여 정관을 보호하니 정관을 맑게 해준다. 이럴 때 두 개의 지장간이 나란히 투간하여 수요에 맞으므로 유정하다. 또 甲木 일간이 丑월에 생하고 지장간 정관 辛金이 투간하면 정관격이다. 또는 巳酉丑 金국을 이루면서 천간에 己土 재성이 투간하여 정관을 생해주면, 두 개의 천간

이 투간하고 지지에서 크게 합하여 격국이 성격이 되었으니 유정한 것이 된다.

② 잡기격의 유정과 무정

상배(相背)라는 것은 서로 극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壬水 일간인데 未월에 태어나 천간에 월지의 지장간 己土가 투간하면 정관격이다. 그러나 지지에 亥卯未 木국을 이루어 정관 未土가 상관인 木국으로 변질되어, 천간에 투간한 정관과 지지에서 크게 합한 상관의 국이 서로 극을 이루어 무정하게 된다. 다음의 무정한 사주의 예시명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정한 사주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壬	甲	戌	癸
午	申	辰	丑

앞의 예시명조는 甲木 일간이 辰월에 생으로 천간에 戌土가 투간하면 편재격이다. 다시 壬水 또는 癸水가 천간에 있어 인수격도 된다. 정인 癸水는 편재 戌土와 戌癸 합하여 둘 다 합하니 재와 인성이 쓸모가 없어져 안 좋다. 壬水가 투간하면 편재 戌土가 壬水를 극하니 재와 인이 둘 다 사용할 수 없게 되니, 재를 탐하여 인수를 파괴하는 탐재괴인(貪財壞印)이 되어 흉하다. 두 개의 천간이 투간해도 용신이 무정하게 된 경우이다. 다음은 또 다른 무정하게 된 예시명조이다.

무정하게 된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辛 甲 庚 丁

未 午 戌 丑

또 다른 예시명조는 甲木이 戌월에 태어나고 정관인 辛金이 투간하여 정관격이다. 그런데 정관과 편관이 투간하여 관살혼잡이 되었으며 년천간의 상관 丁火가 편관 庚金과 정관 辛金을 함께 극을 하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존한다. 편관을 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것이고, 정관을 극하는 것은 명예와 규칙을 어기는 것이 된다. 월지가 午와 합하여 火국을 이루어 상관의 국을 이루었다. 이같이 천간에 정관과 편관이 투간하거나 지지에서 합하여 국을 이루어도 정관이나 편관을 극하여도 무정하게 된다. 계속해서 무정하게 된 예시명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무정하게 된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丙 甲 甲 壬

寅 申 辰 子

앞의 壬子년 甲일간의 예시명조는 유정한 것이 무정하게 변하는 경우이다. 甲木이 辰월에 편인 壬水를 만났는데 丙火 식신을 동시에 만났다. 편인이 있으면 식상으로 생하여야 좋다. 그러나 丙火는 辰의 지장간 戊土를 생하고, 戊土는 壬水를 극하여 인수격이 깨끗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 천간에 壬水가 있고

지지에서 申子辰 水국을 이루어야 丙火가 방해할 수 없다. 甲木이 辰月에 나서 壬水가 투간하였을 경우에 천간에 丙火가 없을지라도 만약 지지에 戌土가 있어서 辰土를 충하게 되면 辰戌충과 丑未충은 같은 흙끼리 충하여 土가 움직인다. 이것을 붕충(朋冲)이라고 한다⁸⁰⁾. 천간의 壬水가 월지 辰에 뿌리가 있다 해도 인 수격을 이룰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유정하면서 무정한 것이므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귀할 수는 없다. 다음은 유정한 사주에 대해 알아보겠다.

유정하게 된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辛	癸	戊	壬
酉	申	辰	子

앞의 癸水일간의 예시명조는 무정이 유정하게 되는 경우이다. 바로 앞의 壬子년에 癸水 일간이 辰월에 나고 정관 戊土가 천간에 투간하여 지지에서 申子辰 水국을 이루어 무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극을 받는 것은 겁재이니 극을 받아야 오히려 더욱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월지가 겁재이면 겁재를 극하는 정관이 사주에 있어야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유정한 예시 명조를 살펴보자.

유정하게 된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丙	壬	丙
戌	午	辰	申

80) 김철화, 『사주명리와 질병의 발생 시기』,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1, p.56.

앞의 丙申년 丙火 일간의 예시명조는 丙火 일간이 辰월에 나고 식신 戊土가 천간에 투간했는데 칠살 壬水도 천간에 투간한 경우이다. 두 개가 천간에 투간하여 서로 극하니 무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이 칠살이니 오히려 좋아졌다. 이것은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것과 같고 또는 칠살격에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하는 것과 같으니 모두 좋은 격국이다. 그래서 무정한 것이 유정하게 된 사례이다.

③ 묘고(墓庫)의 형과 충

묘고란, 辰, 戌, 丑, 未의 사고지를 말하며, 예를 들어 辰土의 지장간을 보면 乙木, 癸水, 戊土가 있다. 이중에 癸水가 水의 묘지 즉 묘고를 뜻한다. 辰, 戌, 丑, 未는 형충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재와 관이 입고(入庫)하여 충을 만나지 않으면 발달하지 못한다는 학설이 있다. 그러나 『자평진전』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한 곳이 없다.⁸¹⁾ 오히려 잡기가 천간에 투간하면 투간한 것이 용신이기 때문에 지지에서 합을 이루면 좋다.

예를 들어 甲木 일주가 辰월에 나고 戊土가 천간에 투간하면 편재이다. 지지에서 申子辰 水국을 이루었다면 인수이다. 만약 戊土가 천간에 투간하지 않고 지지에서 辰戌충이 되었다면 재격이 깨끗하지 못한 것이다. 壬水가 천간에 투간했다면 인성이 투간한 것이므로 辰戌충이 되었다면 인성이 손상을 입게 된다. 辰, 戌, 丑, 未 사고의 지장간을 보면 오행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지만 결국은 土 위주로 된다.

辰戌충·丑未충이 되면 土는 없어지지 않지만 지장간에 있던 金, 木, 水, 火는 파괴되므로 충을 한다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원리에 대해 다음의 예시 명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81)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164. 辰戌丑未, 最喜刑沖, 財官入庫, 不沖不發, 此說雖俗書盛稱之, 然子平先生造命, 無是說也.

辰戌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癸	甲	丙	戌
酉	戌	辰	戌

앞의 辰戌충의 예시명조는, 戌戌년 甲木 일주가 辰월에 태어나 戌土의 편재를 쓰는데 辰戌충이 되고 있다. 이것은 일간 甲木의 뿌리가 辰월에 태어나 지장간 중에 乙木이 있는데 戌土에 의해서 충을 당하니 일간의 뿌리가 없어져서 안 좋게 되었다. 또 丑未충의 예시명조를 통해 丑未충의 원리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丑未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庚	壬	己	壬
戌	丑	未	午

丑未충의 예시명조는 壬午년 壬水 일주의 未월에 태어나 己土의 정관을 쓰는데 지지에서 丑과 未가 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일지 정관 丑土와 월지 정관 未土가 충하면 정관이 깨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시지의 戌土 관의 뿌리가 있어 월천간의 정관 己土를 쓸 수 있게 되었다.

또 辰戌충의 예시명조를 통해 재와 관이 피해를 입은 사례를 알아보겠다.

만약 재관이 水에 해당된다고 할 때는 辰과 戌의 충, 丑과 未의 충이 있으면 재관이 피해를 입게 된다. 예를 들어 己土 일주가 辰월에 나고 정재 壬水가 천간에 투간했을 때 戌土가 辰土를 충하면 辰의 지장간 癸水가 극을 당해 사라져 壬水의 뿌리가 없어지니 안 좋다. 또 辰戌충의 예시명조를 통해 재와 관이 피해

를 입은 사례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辰戌충으로 인해 재와 관이			
피해를 입은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甲	己	癸	壬
申	酉	辰	戌

또한 丁火 일주가 辰月에 나고 壬水의 정관이 투간했을 때, 辰과 戌이 충이 되면 辰중 癸水 정관의 뿌리가 손상되어 정관이 파손되니 좋지 않다. 다음은 이 같은 丁火 일간에 정관의 뿌리가 손상되어 안 좋아진 사주의 경우이다.

정관의 뿌리가 파손된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丁	甲	壬
申	丑	辰	寅

예시명조는 壬寅년에 丁火 일간이 辰월에 나고 정관인 壬水가 투간하였다. 辰土의 안에 있는 癸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천간에 투간한 壬水가 辰을 만나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일러 壬水가 辰土에 입고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때 辰과 戌이 충이 되면 辰土 속의 정관 壬水의 뿌리가 파손된다. 계속해서 지지 4土의 충이 되는 경우를 예시명조를 통해 살펴보겠다.

사고(四庫) 충이 되는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乙 癸 丙 戊
未 丑 辰 戌

예시명조는 戊戌년의 癸水일간으로 태어났다. 辰과 戌의 정관 土가 서로 충을 당한 경우로 癸水 일주가 辰월이고 천간에 戊土가 투간하면 지지에서 辰과 戌이 충이 되어도 깨지지 않는다. 사고(四庫)가 충이 되어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충 가운데서도 子와 午충, 卯와 酉과 같은 충은 2개가 서로 전혀 다른 오행끼리 극을 하게 되어 좋지 않다. 하지만 사고의 충은 같은 土끼리 충을 하므로 동(動)할 뿐이지 극을 하는 충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土가 정관일 경우에는 충이 되어도 해로움이 없다. 다음은 잡기격의 성패를 정리한 도표이다.

<표 9> 『자평진전』 잡기격의 성패

用神	成格	敗格
正官	財, 印	七殺, 食神
財	食神, 正官, 印	比劫, 七殺
印	正官, 七殺, 比劫	財
食神	七殺, 財	正官, 印
傷官	財, 印	財, 正官
殺	食神, 印	正官, 財

※ 잡기격의 용신이 정관일 때 재와 인수가 오면 성격이 되고 칠살과 식신이 오면 패격이 된다는 의미이다.

3) 겸격(兼格)

① 겸격의 기본적 특성

겸격이란 월지장간에서 투간한 용신이 두 개 이상인 것을 말한다. 월지장간이 천간에 투간하면 용신이 되는데, 하나가 아닌 두 개에서 세 개가 투간하면 모두 용신이기 때문에 겸용이 되는 용신이라고 해서 겸격이라 한다.

겸격은 투간한 두 개 이상의 용신이 서로 상생하는지 아니면 서로 상생하지 않고 반목하는 지가 중요하다. 서로 도모하면 유정하게 되고, 서로 도모하지 않으면 무정하게 된다. 유정하면 성격이 되고 무정하면 패격이 된다. 이같은 내용을 예시명조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겸격의 예시명조			
년	월	일	시
丁	壬	己	癸
未	寅	未	酉

앞의 격국 예시명조는 壬水일간이 未월의 정관달에 태어났다. 월천간에 정관 己土가 투간하여 잡기 정관격이 되었다. 월천간의 정관 己土가 용신이며, 시천간의 정재 丁火가 상신이 된다. 시천간의 정재 丁火가 투간하여 정관과 정재를 겸하는 겸격이 되었다. 재가 관을 생하여 재생관의 사주가 되었으며 길신인 시천간의 정재 丁火가 상신으로 월천간의 용신 己土가 정관을 생하여 좋게 되었다.

3. 용신과 상신에 대한 명리이론 분석

송나라 이전 명리학인 삼명학과 자평명리학의 차이점은 년주 중심의 사주 해석 방식에서, 일간 위주의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가장 큰 부분이다. 그리고 년주 중심의 사주해석에 있어 납음오행(納音五行)과 천간의 합이 변하는 합화 이론인 진오행(眞五行) 및 천간의 합화이론이 아닌 정오행(正五行) 중에서 정오행만 사용한 것이 자평명리이다. 송나라 이전에는 입태월을 포함하여 태, 월, 일, 시에 년주를 합하여 오주(五主)로 보았다. 그러나 자평명리는 입태월은 배제한 연, 월, 일, 시의 사주만을 사용하였으며, 신살을 적용하는 년 중심의 사주 해석에 비하여, 신살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것도 큰 변화이자 특징이다.

자평명리는 용신(用神)에 대한 정의를 용사지신(用事之神)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일(事)에 사용(用)하는 신(神)이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월령은 제강이라 하는데 제강은 그물 코에 걸린 줄을 뜻하며 줄을 당기면 그물 전체가 함께 끌어들려지는 것을 말한다. 사주명리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용신을 뜻하는 말이다. 용신에 대해 유백온의 『적천수(適天髓)』에서는 인원용사지신(人元用事之神)이라고 표현하고 있다.⁸²⁾

『자평진전』은 일간 위주의 명리이론을 따르면서 월령중심의 사주해석 논리를 전개한다. 이 책에서는 용신을 도와주고 보호하는 상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월령을 용신으로 취하는 월령용신론(月令用神論)을 주장하고 있다.

서자평은 『자평진전』에서 ‘팔자의 용신은 월령에서 구한다’⁸³⁾고 했다. 팔자

82) 『적천수(適天髓)』, 경도(敬圖)의 글을 명대의 개국공신인 유백온(劉伯溫)이 옮겨 적었다. 전체 4권, 앞의 2권은 통신론(通神論)이고, 나머지 2권은 육친론(六親論)을 다루었다.

83)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91. 八字用神, 專求月令.

의 격국은 월령을 사주에 대입함에 있다고 했다. ‘월령용사지신(月令用事之神)’이라고 했는데, 이는 월령이 용신이 되며 월령을 사주에 대입함으로 격국이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또 월령이 용신도 되지만 격국도 된다. 월령이 용신이며 월령이 격이니, 결국 용신격국(用神格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용신격국에서 용신론과 용신의 성(成)과 패(敗)에 대해서 알아보면, 현대적인 의미의 용신을 『자평진전』에서는 희신(喜神)이라고 하며, 용신은 월령에서 구한다. 일간을 월지(月支)에 비교하면, 생하고 극하는 사주의 변화가 달라, 격국이 나누어지게 된다. 월지가 사길신(四吉神)의 재, 관, 인, 식이면 길한 용신이니 이를 생하고 보호해야 한다. 반대로 월지가 사흉신(四凶神) 살(殺), 상(傷), 겁(劫), 인(刃)이면 흉한 용신이니 이를 역용(逆用)으로 극해야 한다. 길신은 생하고 도와주는 순용을 하고 흉신은 합하고 극하는 역용하면 어느 격국이든지 귀한 격이 될 수 있다.

좋은 것은 순용(順用)해야 한다는 것은, 정재와 편재의 재와 식신이나 상관의 상생(相生)하는 것과 정관이 재를 보호하는 것, 재성이 투간하여 정관을 생하는 것을 말한다. 인성이 정관을 보호하는 것과 관살이 인성을 생해야 하는 것에 겁재가 있어 재로부터 인성을 보호하는 것, 기가 강한 일간이 식신과 상관을 생하는데 식신이 재성을 생하여 식신이 보호되는 것이 순용이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은 역용해야 한다. 식신으로 칠살을 극하고 합할 경우에는 재성이 칠살을 도와주는 것을 싫어하며, 양인을 관살이 극하고 합하는 경우에는 관살이 없으면 나쁘기에 양인을 극하거나 합한다. 또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것은 식신은 양인의 생을 받아 재를 생하기 때문에 인수가 식신을 극하거나 합하면 좋지 않다. 그리고 기가 왕한 상관을 인수가 극하는 것, 상관이 재를 생하여 상관의 기가 재성으로 변하는 것, 월지가 겁재인 월겁(月劫)인데 정관이 투간하여 겁재를 극하거나 합하는 것, 천간에 재성이 용신이며 겁재가 있을 때 식신이 투간되면 겁재가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해주는 것을 역용이라 한다.

사주 풀이의 방법은 먼저 용신의 상황을 살핀 후에 순용할 것인지, 역용할 것

인지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년, 월, 일, 시의 간지를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 부귀빈천을 분석한다. 결국 사주의 해석은 월지의 제강(提綱)만이 주체가 되고, 사주 간지의 팔자를 월령에 대조하여 좋고 나쁨을 가려야 한다.

월령에 용신(用神)이 없을 경우 즉, 甲乙 일간이 寅卯월에 생하여 일간과 월령이 동일한 오행이라면 일간과 같은 오행을 용신으로 삼지 못한다. 이 경우 사주에 재성, 관살, 식상 등이 천간에 투간하였거나 지지에서 삼합국(三合局)이나 삼회방(三會方)을 이루었다면, 그것을 용신으로 정해야 한다. 용신은 월령의 지장간(地臟干)을 뜻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월령을 위주로 용신을 찾으며, 월령에 용신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용신을 찾아야 한다. 이것을 건록격(建祿格)과 월겁격(月劫格)이라 하며, 용신이 아닌 것을 용신으로 삼게 된다.

『자평진전』은 월령과 용신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일간이 왕하거나 약함의 중요함을 지적한 것으로, 일간의 왕쇠(旺衰)가 사주팔자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일반적으로 일간의 강약을 따져서 용신을 취하는 억부법(抑扶法)과는 구분이 되는 점이다.

재, 관, 인, 식은, 용신이 선(善)하니 순용(順用)하는 것이다. 살, 상, 겁, 인은 용신이 선하지 않으니 역용(逆用)하는 것이다. 순하면 순용하고 역(逆)하면 역용해야 배합이 마땅함을 얻어 모두 귀격이 된다.⁸⁴⁾

정리해보면 『자평진전』은 월령용신을 기준으로 보며 4가지의 길신과 4가지의 흉신으로 나눈다. 재와 인수는 정재, 편재, 정인, 편인을 가리지 않고 길신으로 본다. 사주의 용신을 크게 길신과 흉신으로 구분하고, 길신과 흉신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운이 상신이다. 용신을 극하는 흉신과 용신을 보

84)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91. 財官印食, 此用神之善而順用之者也; 殺傷劫刃, 用神不善而逆用之者也。當順而順, 當逆而逆, 配合得宜, 皆爲貴格。

호하고 생해주는 상신의 기운을 잘 풀어서, 명을 다시 대운과 세운에 대입하여 판단하고 해석한다.

선(善)하면 생하고 도와주는 순용을 하는 것이니, 재격은 식신으로 상생하고, 관성을 생하여 재성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관격은 재성을 투간하여 상생하고, 인수를 생하여 관성을 보호하는 것이 좋다. 인수격은 관살로 상생하고, 비견과 겁재가 재성을 극하여 인수를 보호하는 것이 좋다. 식신격은 신왕으로써 상생하고, 재성을 생하여 식신을 보호하는 것을 좋아한다. 선(善)하지 않으면 역용하는데 칠살은 식신으로 극하고 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성과 식신으로 재가 커지는 것은 좋지 않다. 상관격에 인수가 있는 것을 패인(佩印)이라 하고 극하고 합하는 것과, 재성을 생하고 상관을 화(化)하는 것을 좋아한다. 양인격은 관살로 극하고 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관살이 모두 없는 것을 꺼린다. 월겁격은 관성이 투간하여 극하고 합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성을 사용하고 식신과 상관을 투간하여 비겁의 생을 받는 것이 좋다.

즉 사길신, 정관, 정편재, 정편인, 식신 중에서 재격은 길신으로 식신을 생하고 비견과 겁재를 화하며, 정관을 생하여 정관으로부터 재가 보호받아야 좋다. 인수격은 관과 살로 생하고 비견과 겁재가 재성을 극하여 인수를 보호하는 것을 좋아한다. 식신격은 일간이 왕해야 하며 식신을 보호해야 재를 생하고 그 재가 좋은 운이 된다.

① 용신(用神)의 변화

용신은 월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그러나 월령의 지장간(支藏干)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용신의 변화는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겨난다. 12지지 가운데 子, 午, 卯, 酉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장간이 2개나 3개이다. 사고(四庫)라고 하는 辰, 戌, 丑, 未는 子, 午, 卯, 酉의 왕지(旺支)나 寅, 申, 巳, 亥의 생지(生支)와 달리 여러 가지 기운이 섞여 있어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寅木의 지장간은 세 가

지의 기운인 戊土, 丙火, 甲木의 대상체가 합쳐져서 대표적인 木오행의 성질을 나타낸다.

丁火 일간이 亥월에 태어났다면 정관격이다. 그런데 지지에 卯木, 未土가 있으면 亥卯未 木국이 되어 정관인 亥水가 木의 인성으로 변화한다. 또 己土 일간이 申월에 생하면 상관격이다. 그런데 申의 지장간 戊, 壬, 庚 가운데 본기(本氣)인 庚金은 투간하지 않고 壬水가 투간했다면 상관격이 정재격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지지의 회합과 지장간의 투간에 의해서 사주의 구조가 변하는데, 이것을 용신의 변화라고 한다.

변화하여 좋게 되면 그 격이 좋아지고, 변화하여 나쁘게 되면 그 격은 나빠진다.⁸⁵⁾ 예를 들어 辛金 일간이 寅월에 태어나면 정재격이다. 그런데 천간에 寅木의 지장간 丙火가 투간하면 정재격이 변화하여 정관격이 된다. 또 壬水 일간이 戌월에 태어나면 편관격이다. 그런데 戌土의 지장간 辛金이 투간하면 칠살격이 변하여 인수격이 된다. 그리고 癸水 일간이 寅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이다. 寅월의 지장간 상관 甲木은 투간하지 않고 정재인 丙火가 투간하거나 지지에 午火나 戌土가 있어서 寅午戌 火국을 이루면 상관격이 재격으로 변화한다. 이런 상황에는, 정관인 戊土가 천간에 투간했다 해도 상관이 정관을 만나는 상관견관(傷官見官)으로 보지 않고, 왕성한 재성이 정관을 생하는 재왕생관(財旺生官)으로 본다. 마찬가지로 乙木 일간이 寅월에 태어나면 겁재격이다. 지장간 정재 戊土가 천간에 투간하거나 지지에 寅木이나 午火가 있어 寅午戌 火국을 이루면 월령의 겁재가 변하여 식신이나 상관으로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변화하여 좋게 되었다고 한다.

반대로 변화하여 나쁘게 된 경우를 보면, 丙火가 寅월에 태어나면 인수격이다. 그런데 甲木이 투간하지 않고 지지에 寅木이나 午火가 있어서 寅午戌 삼합 火국이 되면 편인격이 비견으로 변격이 된다. 또 丙火 일간이 申월에 태어나면 편재격이다. 申의 지장간에 있는 庚金이 편재격인데 庚金은 투간하지 않고, 申의 지장간에 있는 壬水가 투간하거나 지지에서 子水 또는 辰土가 있어 申子辰 삼합

85)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123. 變之而善, 其格愈美; 變之不善, 其格遂壞.

水국을 이루면 편재가 변하여 칠살로 된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변화하여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잃지 않는 것이 있다. 辛金이 寅월에 태어나면 정재격이다. 寅의 지장간에 있는 丙火 정관이 투간하면서 동시에 甲木도 투간했다면 격국은 정재격이다. 정재격인데 정관격을 겸한 것에 불과하다. 또 乙木이 申월에 태어나면 정관격이다. 申의 지장간 인수 壬水가 천간에 투간하여 인수격으로 변했는데, 申의 지장간 중에 정재 戊土가 동시에 천간에 투간하면 정재 戊土가 인수 壬水를 극하여 인수가 파괴된다. 그러면 정재 戊土가 월지에 뿌리를 내렸다고 해도 여전히 정관격으로 남고 재격을 겸할 뿐이다. 癸水가 寅월에 태어나면 상관격이다. 寅 중에 정재 丙火가 천간에 투간하면 정재격으로 변하지만 월지의 본기인 상관 甲木이 동시에 천간에 투간하면 상관격으로 복귀한다. 정관인 戊土가 있으면 상관과 정관이 함께 있는 상관이 정관을 극하는 상관견관이 되어 좋지 않다. 丙火일간이 寅월에 생하고 지지에서 寅午戌 火국을 이루면 편인이 겁재로 변하는데, 천간에 칠살 壬水가 투간하여 겁재를 제압하거나 월지의 본기인 甲木이 투간하면 다시 편인격을 회복한다. 丙火가 申월에 태어나면 편재격이다. 申 중에 칠살 壬水가 천간에 투간하면 편재격이 칠살격으로 변한다. 그러나 천간에 식신인 戊土가 투간하면 식신은 칠살을 제압하니 격국은 다시 편재격으로 돌아간다. 이런 경우는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상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주를 풀이할 때에는 용신의 존재와 변화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

② 용신의 순수함과 잡됨의 분석

사주의 용신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변화의 종류는 순(純)과 잡(雜)이 있다. 변화가 순하면 길하고, 혼잡하면 흉하다. 순(純)이란, 상호작용으로 서로 사용되는 것으로 두 가지가 서로 득을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辛金 일간이 寅월

에 출생했는데, 寅 중의 정재 甲木과 정관 丙火가 천간에 투간하면 정재 甲木과 정관 丙火가 생하여 득이 된다. 또 戊土 일간이 申월에 태어났는데 申의 지장간 중, 식신 庚金과 편재 壬水가 둘 다 천간에 투간하면 식신이 편재와 서로 상생하여 서로 득이 된다.

잡이란 서로 작용하여 도모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사주 전문용어로 불상모(不相謀)라고 한다. 예를 들어 壬水 일간이 未월에 태어났는데, 未 지장간 중의 정관 己土와 상관 乙木이 천간에 투간하면, 상관이 정관을 극하여 불상모가 되어 좋지 않다. 또 甲木 일간이 辰월에 태어났는데 辰 지장간 중에 편재 戊土와 편인 壬水가 천간에 투간하면 편재가 편인을 극하여 불상모가 된다. 이런 경우를 용신이 깨끗하지 않다고 한다. 순하고 혼잡한 이치는 용신의 변화에서 나오며 용신을 연구하면 순잡의 이치도 드러나게 된다.⁸⁶⁾ 사주 분석을 해보면 용신이 순한 사람은 진로나 직업을 선택할 때 흔들리지 않고 대부분 일을 성취하는 편이다. 반대로 용신이 잡하면 학업이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③ 용신의 좋고 나쁨의 구별

팔자에 용신이 있으면 격국이 있고 격국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고저가 있다. 재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 상관격, 양인격, 월겁격 중에 귀격(貴格)이 있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천격(賤格)이 있을 수 있다. 귀한 사주에서부터 천한 사주까지 여러 형태이다. 그 이치를 밝힐 수 있으니, 기준은 상극이 득이 되어 마땅하니 바로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그리고 유력(有力)과 무력(無力)의 차이에 달려 있는 것이다.⁸⁷⁾

86)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129. 何謂純. 互用而兩相得者是也. 如辛生寅月, 甲丙並透, 財與官相生, 兩相得也. 戊生申月, 庚壬並透, 財與食相生, 兩相得也. 癸生未月, 乙己並透, 殺與食相剋, 相剋而得其當, 亦兩相得也. 如此之類, 皆用神之純者.

87)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171. 八字有既用神, 必有格局, 有格局必有高低, 財官

정관격에 인수가 있는 정관패인격(正官佩印格)은 정관격에 재성이 투간한 재격이나 관격보다 못하다. 그러나 정관격인데 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甲木 일간인데 酉월에 생하여 정관인 辛金이 천간에 투간했을 때 사주에 상관인 丁火와 편인 壬水가 투간하였다면 상관을 합하거나 극하여 정관을 존속시키는 것을 합상존관(合傷存官) 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귀하게 되고 좋게 된다. 재격은 비견과 겁재를 꺼리는데 칠살이 있으면 비견과 겁재가 있어서 칠살을 합하거나 극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비견과 겁재가 용신이 된다.

甲木 일간이 辰월에 태어나면 편재격인데, 辰중의 戊土가 천간에 투간하여 편재격이 성격이 된다. 이때 천간에 칠살이 있으면 나쁘게 되며, 또 辰중의 乙木 겁재가 천간에 투간하면 乙庚합하여 칠살과 겁재가 합이 된다. 그러면 두 개의 기신이 힘을 쓰지 못하므로 귀격이 되어 좋게 되었다.

그리고 乙木이 酉월에 태어나면 편관격이며 酉중의 칠살 辛金이 투간하고 천간에 식신 丁火의 기운이 강하고 木의 기운도 강하다면 좋게 되어 귀하게 된다.

정관이 강하고 재성이 투간했는데 일간도 지지에서 녹(祿)과 인(刃)을 만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丙火 일간이 子월에 태어나면 정관격이다. 정관 癸水와 천간에 편재 庚金과 함께 투간되고, 지지에 寅火와 午火가 있다면 寅木은 丙火의 장생지이고 木생火를 하며, 午火는 일간의 양인이 되니 3박자를 갖추어 귀한 것으로 유력하게 된다.

흥신이 길신을 생하거나 길신이 길신을 생하면 서로 유정(有情)한데 용신이 근이 있어 유력(有力)을 겸한 사주도 있다.

乙木이 酉월에 생하여 칠살격인데 칠살 辛金이 투간하고 식신 丁火가 칠살을 제압하면 辛金의 녹지(祿地)인 酉金은 丁火가 장생(長生)하는 곳이다. 辛과 丁이 모두 월령(月令)에 뿌리를 내린 것과 다름없어 유력하고 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상의 격국이 되는 것이다.

印食煞傷劫刃. 何格無貴, 何格無賤. 由極貴而至極賤, 萬有不齊, 其變千狀, 豈可言傳. 然其理之大綱, 亦存有情無情有力無力之間而已.

甲木이 酉월에 생하여 정관격이 되었는데 천간에 상관 丁火가 투간하고 인수 癸水를 만나면 癸水가 상관 丁火를 극하여 정관을 보호한다. 인수 癸水로 상관을 극하는 것은 편인 壬水가 丁火를 합(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는 유정하지 못하다.⁸⁸⁾ 乙木 일간이 酉월에 태어나면 칠살격인데 천간에 식신 丁火가 투간하여 칠살 辛金을 제압할 때, 칠살은 강하고 식신 丁火는 약한 경우도 있고, 칠살은 약하고 식신은 강할 경우도 있다. 혹은 칠살 辛金과 식신 丁火가 둘 다 강한데 일간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약할 경우도 있다. 이 때는 유력한 것 같지만 무력한 것이니 사주의 격이 떨어진다.

한편 인수격에 칠살을 용신으로 삼는 사주는 귀격의 사주이다. 그러나 일간이 강하고 인왕(印旺)한테 칠살이 투간되면 고독하고 빈궁하다. 이는 일간이 강하면 인수가 생해주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가 왕성하고 칠살이 인수를 생조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어 안 좋다. 또한 상관에 인수가 있는 상관패인격(傷官佩印格)도 총명한 귀격이다. 그러나 일주가 매우 강하고 상관이 미약하면서 인성이 지나치게 많다면 귀하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인수가 일간이 강한 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인수에게 극을 당하여 약한 상관을 더욱 약하게 되어, 사주의 균형이 깨지게 되기 때문이다.

④ 상신

상신은 사주의 해석에 있어 사주를 좋게 해주는 희신(喜神)의 간지를 말한다. 그래서 사주해설에 있어 상신은 중요하다. 월령에 용신이 있으면 다른 곳에는 반드시 상신이 있게 된다. 『자평진전』에서는 상신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88)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139. 如甲用酉官, 透丁逢癸, 癸剋不如壬合, 是有情而非情之至.

용신을 손상하는 것이 일간을 손상하는 것보다 심하고, 상신을 손상함이
용신을 손상하는 것보다 심하다.⁸⁹⁾

앞의 상신에 대한 인용문을 보면 일간이 손상되는 것보다는 용신이 손상되는
것이 더 나쁘고, 용신이 손상되는 것보다 상신이 손상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
하면서, 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신은 용신은 아니지만, 용신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나라의 임금도 혼자 성군이 될 수 없으며, 국가를 이
끌어 갈 수는 없다. 임금을 보좌하고, 보호하는 재상이 필요한데 사주에서 상신
이 바로 이 훌륭한 재상에 해당한다.

사주가 정관격인데 재성이 생하고 보조하고 있으면 정관은 용신이 되고 재성
은 상신이 된다. 재격에서 재가 왕하며 관을 생하면 재성은 용신이 되고 정관은
상신이 된다. 또 칠살에 식신이 있어서 칠살을 제어하면 칠살은 용신이 되고 식
신은 상신이 된다. 용신이 심하게 상하면 내 몸까지 다치게 되고 상신이 상하면
용신이 다치게 된다.

상신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예시명조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정관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壬 甲 丁 辛
午 寅 酉 亥

예시명조는 甲木 일간의 辛亥년 酉월에 태어났다. 甲木 일간이 월지 酉金 정
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월천간에 상관 丁火가 투간하고 시천간에 편인 壬水가 투

89)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154. 傷用神甚於傷身, 傷相甚於傷用.

간하였다. 그래서 丁壬합이 이루어져 정관 辛金이 보호되므로 정관격이 성격이 된다. 이 같은 경우에 壬水가 상신이 된다.

다음의 정재격 사주에서 상신에 대한 역할과 그 해석에 대한 예시명조이다.

정재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己	戊	甲	癸
未	午	子	巳

戊土 일간이 癸巳년 子월에 태어났다. 월지 재성이 子水인데 월천간에 칠살 甲木과 시천간에 겁재 己土가 투간하면, 겁재가 칠살을 합하고 재성이 살아남게 되어 정재격의 성격이 된다. 이 사주가 성격이 되는 것은 겁재 己土가 있기 때문이다. 己土가 상신이 된다. 계속해서 칠살격 예시명조를 통해 상신에 대해 알아보겠다.

칠살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戊	乙	癸	丁
寅	亥	酉	未

乙木 일간이 丁未년 酉월의 편관달에 태어났다. 월지가 칠살 酉金인데, 년천간에 식신 丁火가 투간하고 편인 癸水가 투간하여 癸水가 丁火를 극하니 식신이 깨져서 파격이 된다. 시천간에 戊土가 투간하면 戊癸합이 되어 丁火를 극하지 못한다. 그래서 식신 丁火가 칠살 辛金을 극하므로 칠살격이 성격이 된다. 이 사

주가 성격이 되는 것은 戊土가 있기 때문이며 戊土가 상신이 된다. 이번에는 식상격의 예시명조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상신에 대해 알아보겠다.

식상격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己	癸	己	丙
未	卯	亥	申

癸水 일간이 丙申년 亥월에 태어났다. 천간에 정재 丙火가 투간하였지만 재성이 월지의 겁재 亥水에 극을 당하여 작용을 못한다. 지지가 亥卯未 木국을 이루어 겁재 亥水가 변하여 식상이 되어 겁재격이 식신격이 되었다. 이 식신 재성인 丙火를 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卯未가 木이 되어 상신이 되고 상신에 힘입어 사주가 성격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신에 대해 몇 개의 예시명조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상신의 적용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癸	庚	庚	戊
未	子	申	辰

庚金 일간이 戊辰년의 申월에 태어나서 건록격이 되었다. 시천간에 癸水가 투간하여 좋은 작용을 하지만, 癸水가 월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생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다행인 것은 지지가 申子辰 水국을 이루면 金이 水로 변하여 금수상함(金水相涵)하게 되어 좋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子水와 辰土의 상신에 힘

입어 사주가 좋게 된다. 상신이 파괴되지 않으면 귀격이 된다. 상신이 파괴되었으면 파격이 된다.

사주를 볼 때는 격국과 용신과 상신의 작용에 대하여 살펴야 한다. 사주마다 상황이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대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각 사주마다 세심하게 분석하여 판단해야 한다.

⑤ 구응신(救應神)에 대한 이해

구응신이란 함께 호응하여 구원한다는 뜻이다. 구응이 되는 것은 첫째, 정관이 상관을 보면 인수가 있어 상관을 극하거나 합하는 것, 또 정관과 칠살이 함께 있는데 칠살이 합이 되어 정리되는 것, 형충이 있어도 회합으로 해소되는 역할을 하는 간지를 구응이라 한다.

둘째, 재가 겁재를 보면 식신이 투간하여 겁재를 화(化)하거나 정관이 있어 겁재를 극하고 합하는 것, 재격에서 칠살을 보면 식신이 칠살을 극하고 칠살을 합하여 재가 남아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수가 재에 의해서 극을 당했는데 겁재가 있어서 재를 막아주거나 재를 합하여 인수가 남는 것과, 또한 식신이 편인을 만났는데 재가 편인을 극하는 것을 구응이라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간지를 구응신이라 한다.

셋째, 칠살과 식신과 인수가 있을 때 인수가 칠살을 보호하거나 재가 있어서 식신을 보호하는 것이 구응이며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간지가 구응신이다. 또 상관이 재를 생하는 상관생재격에 칠살이 투간했으나 칠살이 합이 되는 것, 양인격에 관살을 용신으로 삼는데 식상이 관살을 극할 때 인수가 식상을 극하여 관살을 보호하는 것을 구응이라 하며,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간지를 구응신이라 한다.

넷째, 월령이 월건록과 월겁격일 때 정관이 용신인데 상관을 만나 정관이 상관으로 부터 당하여 파격이 되었으나, 상관이 합이 되면 구응이며, 이 같은 역할을 하는 간지가 구응신이다. 또 재가 용신인데 칠살이 있어 파격이 되었지만 칠

살과 합이 되어 제거 되었을 때, 이것을 구응이라고 한다. 구응에 대해 예시명조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구응의 예시명조			
시	일	월	년
丁	辛	甲	壬
酉	亥	申	辰

辛金 일간이 甲辰년 申월에 태어나 월지가 겁재일때는 월겁격이 된다. 상관 壬水가 水生木, 木生火로 생을 하여 정재 甲木에 의해 구응이 되었다. 상관 壬水가 정재 甲木으로 인해 정관 丁火를 극하는 것을 면했기 때문에 정재 甲木이 구응이 된다. 사주의 좋은 용신은 모두 성패와 구응에 달려 있다.

정관이 상관을 만나 극을 당하거나 형충을 당하면 정관격이 패하여 파격이 된다. 재가 가볍고 비견과 겁재가 많거나, 재가 있는데 칠살이 투간하면 재격이 파격이 된다. 인수가 약하고 재를 보거나 혹은, 일간의 기가 강하고 인수가 많은데 칠살이 투간되면 인수격이 파격이 된다. 식신이 편인을 만나거나 또는 재를 생하고 칠살 투간하면 식신격이 파격이 된다. 칠살이 재를 만나고 식신의 합과 극이 없으면 칠살격이 파격이 된다.⁹⁰⁾ 금수상관격(金水傷官格)을 제외하고 정관이 있는 상관격과, 상관이 재를 생하는 사주의 구조가 되면서 칠살이 있는 것과, 상관은 약한데 일간의 기가 강하고 인수가 있는 것은 상관격이 파격이 된다. 또 양인격에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이 파격이 된다. 월령이 건록, 월겁인데 재와 관이 사주에 없거나, 칠살과 인수가 투간한 것은 모두 월령 건록과 월겁의 격국이 파격이 된다.

90)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108. 官逢傷剋刑沖, 官格敗也. 財輕比重, 財透七殺, 財格敗也. 印輕逢財, 或身強印重而透殺, 印格敗也. 食神逢梟, 或生財露殺, 食神格敗也. 七殺逢財無制, 七殺格敗也.

격을 이루었다가 다시 파격이 될 경우가 있는데 좋지 않은 기신(忌神)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패했다가 다시 좋아지는 패중유성(敗中有成)⁹¹⁾은 구응이 있기 때문이다. 파격이 되어 좋지 않는 경우란 정관격이 재를 만나 성격이 되었는데 사주에 상관이 있어 정관이 극을 당하거나 상관이 정관과 합할 경우이다.

그리고 인수격인데 식신이 투간하여 용신으로 삼는데 재가 투간된 경우, 칠살이 투간하여 인수를 생하고 있는데 재가 투간하여 인수가 파괴되고 칠살만 남는 경우 파격이 되어 좋지 않다. 또, 식신격에 칠살과 인수가 있는데 재가 있는 경우, 칠살이 식신의 극을 받고 있는데 인수가 있는 경우, 상관이 재를 본 상관생 재격인데 재가 합을 당한 경우, 인수가 용신인데 인수가 파괴된 경우 좋지 않다. 양인격에 정관이 투간했으나 정관이 파괴된 경우, 양인격에 칠살이 투간했으나 칠살이 합이 된 경우, 월지가 건록 또는 겁재인데 정관이 투간했는데 상관의 극을 당하거나 또는 재가 투간하고 다시 칠살이 투간한 경우들은 모두 파격이 되어 좋지 않다.

⑥ 성격이 파격이 되고 파격이 성격이 되는 원리 분석

팔자의 변화는 많으나 크게 격이 좋게 이루어진 성격과 격이 좋지 않은 파격으로 나눈다. 성격이 파격으로 변하고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다.

『자평진전』을 보면, 상관이 변하여 재성이 되어 성격이 되는데, 辛金 일간이 亥월에 태어나 지지에 卯未가 있어서 亥卯未 木국을 이루면 재성이 되었다. 천간에 칠살 丁火가 투간했다면 재성이 칠살을 생해주므로 파격으로 변한다. 이것은 성격이 되었다가 파격이 된 것이다. 인수격에 칠살을 사용하면 성격이 된다. 癸水 일간이 申월에 태어나 사주에 인성인 金이 많이 있다면 재성을 써서 과다한 인성을 극해야 하는데, 이때 칠살을 만나면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야 하니 인수격이라도 칠살을 꺼린다. 즉, 재가 많은 인수를 극해야 하는데, 재가 칠살을

91) 파격이 다시 격을 이루게 되는 것을 말한다.

생하고 있어서 인수를 극하지 못해서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 성격이 파격으로 변하게 된다.

반대로 파격이 성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평진전』을 보면, 관인격(官印格)이 상관을 만나면 파격이 된다. 辛金 일주가 戊戌월에 태어났고 년천간에 丙火가 있고 시천간에 상관 壬水가 있다면, 시천간에 있는 상관 壬水가 월천간의 정인 戊土를 뛰어 넘어서 년천간의 정관 丙火를 극할 수는 없다. 반대로 상관 壬水가 일간의 기운을 설기한다. 그러므로 파격이 성격이 되었다. 또 양인격(陽刃格)인데 칠살과 식신이 있으면 칠살과 인수가 있는 살인격으로 파격이 된다. 庚金 일간이 酉월에 태어나 년천간에 丙火와 월천간에 丁火가 있고 시천간에 壬水가 있으면 식신이 정관과 합하고 칠살만 있으니 정관을 합하고 칠살만 남겨둔 합관류살(合官留殺)이 된다. 그러면 천간에 칠살과 정관이 섞여있는 관살혼잡(官殺混雜)을 면하여 좋아졌다. 이것은 파격이 성격으로 변환 것이다.

성격이 파격이 되고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과정은 변화가 많으니 사주의 팔자 구조와 형성을 자세히 살펴봐야 사주 해석에 오류가 생기지 않는다.

⑦ 용신과 기후의 배합과 득실

사주를 볼 때는 월령의 용신을 중심으로 풀어가는데, 월령은 12달로서 계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계절과의 관계를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사주명리에서는 시기를 잘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몇 배의 능력을 발휘하고, 시기를 잘못 만나면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을 한다.

인수격이 정관을 만나면 관과 인수가 둘 다 온전하기에 귀하다. 겨울에 태어난 甲乙木 일간이 인수 水를 만나면 비록 庚辛金의 정관이 투간해도 반드시 귀함에 어려움이 있다. 金은 차가워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니 얼어붙은 물이 나무를 생할 수 없다. 일간과 인수의 기가 강하고 식신이 투간하면 귀하게 된다. 인수격은 겨울철에 木을 사용하면 수기(秀氣)가 빼어나다. 이는 겨울철의 나무가

불을 만나 일간 木의 기운을 설기할 뿐 아니라 기후를 따뜻하게 하기 때문이다.

상관이 관을 보면 나쁜 일이 많이 발생한다. 甲木의 식신과 상관은 火이다. 겨울철에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 따라서 식신과 상관 火가 이 사주에서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이것을 사주 전문용어로 조후라 한다. 상관이 인수를 본 상관패인(傷官佩印)과 상관이 칠살을 본 상관대살(傷官帶殺)은 상관패인의 격국 가운데서도 여름에 생한 木을 사용할 경우는 아주 빼어나다. 상관대살의 격국 가운데서도 금수상관격은 더욱더 뛰어나게 되는데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상관이 재를 사용하면 본래 귀한 격이다. 겨울철의 물을 사용하면 작은 부자이므로 크게 귀하지는 않다. 겨울철의 얼어붙은 물은 나무를 제대로 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⁹²⁾ 여름철의 나무는 너무 뜨거워서 火가 재인 土를 생할 수 없어 크게 귀하게 되지는 못한다.

봄의 木 일간이 火를 만나면 서로가 밝게 통하되어 좋은데 이것을 사주에서 전문용어로 목화통명(木火通明)이라 한다. 그러나 여름철의 木 일간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겨울철 木에 한해서 적용된다. 가을철의 金 일간이 水를 만나면 금수상함(金水相涵)이 되어 좋다. 겨울철의 金 일간의 경우는, 기(氣)에는 쇠왕(衰旺)의 구별이 있고, 용신을 취함에 있어서도 같지 않다.

봄의 木 일간이 火가 있으면 목화통명인데, 관성이 있으면 좋지 않다. 그것은 火는 식신과 상관인데 식신과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 때문이다. 가을의 金 일간이 火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는데 관성이 있으면 좋지 않다. 역시 火가 식신과 상관이 되는데 식신과 상관이 정관을 극하기에 좋지 않다. 가을철의 金 일간인데 水가 있으면 금수상함이니 관성이 있어도 괜찮다. 庚金 일간이 申월생으로 지지에 子水 또는 辰土이 있으면 申子辰 水국을 이룬다. 천간에 정관 丁火가 투간할 때, 壬癸水가 천간에 투간하여 정관을 극하지 않으면 귀격이 된다. 이것을 申월생으로 申子辰 水가 되어 있고 천간에 관이 투간되었을 때 금수상관 희견관(金水傷官 喜見官)이라고 한다.

92)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앞의 책, p.149. 傷官用財, 本爲貴格, 而用之冬水, 即使小富, 亦多不貴, 凍水不能生木也.

V. 결론

명리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길흉화복에 대한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서, 음양오행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⁹³⁾ 음양과 물, 불, 나무, 쇠, 흙 등을 적용하여 오행의 적용 영역을 확장함에 따라 음양오행설은 명리학의 틀이 되었다.⁹⁴⁾ 이러한 사주명리학의 고전이자 원형인 년 중심으로 납음오행과 입태월을 적용한 방식을 삼명학이라 했다. 그러다가 천여 년 전에 서자평이 납음오행과 입태월을 적용하지 않고, 일위주의 방식으로 사람의 명을 풀어가는 방법을 새롭게 창안하였는데, 서자평의 호를 따 자평명리학이라 한다.

자평명리는 납음오행을 지장간으로 하며 월령중심의 이론이다. 월령 중심의 이론에는 격국론이 있고 조후론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자평 명리와 관련이 있는 이론들이다. 명리학에서는 이같은 자평명리 이론을 토대로 좀 더 넓고 깊게 발전한 다양한 명리 이론들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의 시각에서 명리사상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의 사상과 인식 체계를 현대의 시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삼대 보서로 꼽힌다는, 『적천수(滴遷水)』, 『자평진전(子平眞詮)』, 『궁통보감(窮通寶鑑)』에 있어서, 이것들에 대한 번역과 해석에 차이가 있으며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

93) 고효순, 『命理學과 老莊思想에 있어서 命에 대한 비교연구』, 경기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p.23.

94) 신정근, 『동양철학의 유혹』, 2002, p.234.

어 한문에 대한 인식의 차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이 선행되어 이해되어야 한다.⁹⁵⁾

자평명리학의 문헌 가운데 『자평진전』은 여러 면에서 우수한 점도 있지만 문제점들도 있다. 특히 『자평진전』은 예시명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부족하다. 인수격이 칠살을 쓰는 인용칠살은 본래 귀격이다.⁹⁶⁾라고 했지만 정확한 예문이나 예문의 설명이 부족하여 정확한 해석이 어렵다. 또 월령만을 제강으로 하는 용신은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자평진전』은 연구하기는 어려운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자평진전』을 평주한 서락오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주를 풀이하는 법으로 인해, 기본 이론과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 후대 학자들에게도 혼란을 일으켰다. 서락오 개인의 생각과 학문이 그대로 평주된 점이 아쉽다.

서락오는 평주를 했을 뿐만 아니라 원본의 내용을 삭제하고 첨부하였으며, 임의로 첨가한 장을 부론으로 이름하였으며 일반인들은 심효침의 글로 오해를 하게 만들었다.

서락오는 심효침의 원저서에 몇 가지를 첨부하여 54편으로 만들면서 자신의 해석을 첨가하였다. 심효침은 격국의 순용과 역용의 구별을 중요시하였다. 4길신인 재관인식의 격국은 생하고 도와주는 순용의 격국이고, 4흉신인 살상겁인의 극하고 합하는 역용의 격국이다. 이 개념을 모르면 심효침의 이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 심효침은 때로는 인성을 인수라고도 했으며 관성을 관살로 쓰기도 했고 정관의 뜻으로도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원본 내용 가운데는 추상적인 단어가 많았고 정확한 뜻을 알 수 없는 부분도 많다.

『자평진전』의 명리이론을 보면, 첫째, 일간 중심의 이론으로 되어 있다. 둘째, 생극제화를 강조했다. 셋째 월령이 용신이며 격이다. 정관, 정인, 정재, 식신

95) 이강진, 『지구운동과 명리이론의 상관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p.2.

96) 沈孝瞻 原著, 徐樂吾 評註, 『子平眞詮評註』, 進源書局, 2012, p.140. 至如印用七煞. 本爲貴格.

을 4길신으로 보고 편관, 상관, 겁재, 양인을 4흉신으로 구별했으며 극하고 합하는 제복을 설명했다.

『자평진전』은 격국, 용신, 대운의 삼요소를 모두 채택함으로써 현대 명리학의 간명체계를 정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또 송나라 이전의 명리 요소인 신살을 배제하고, 여러 가지 잡격을 정리하여 정격국(正格局)의 이론에 대해 체계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자평진전』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은 『자평진전평주』로 인해서이다. 이로 인해 일부 명리학계에서는 『자평진전』을 과소평가하는 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자평진전』을 국내 명리학자들이 서락오가 평주한 『자평진전평주』를 번역하여 내놓으면서 『자평진전』이라는 제목을 써서 원래의 『자평진전』과 『자평진전평주』와도 구별이 모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떤 고전 명리서들도 완벽한 것은 없다. 저자가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문장으로 모두 표현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독자가 저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자평명리학의 여러 문헌 중에서 『자평진전』은 자평명리학의 기능적인 면을 잘 살려내 현대 명리학이론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I. 原典類

『珞琰子三命消息賦』

『五行大義』

『玉照神應眞經』

『袁天綱五星三命指南』

『李虛中命書』

『三命通會』

『命理約言』

『窮通寶鑑』

『子平眞詮評註』

II. 翻譯本類, 外國書籍類

徐升 著, 『淵海子平評註』,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沈孝瞻 著, 李泳蓀 刊, 『子平眞詮評註』, 台中: 瑞成書局, 1995.

김동규, 『適天髓』, 명문당, 1983.

咸勵勳, 『중국인명대사전』, 1993.

Ⅲ. 單行本類

쑨테 지음, 이화진 옮김, 『중국사 산책』, 일빛, 2011.

신용진, 『사람을 읽는 명리학』, 2010.

신정근, 『동양철학의 유혹』, 2002.

이성환, 김기현 공저, 주역의 과학과 도, 정신세계사, 2002.

이익, 『성호사설』, 국립 중앙 도서관.

이춘식, 『중국사서설』, 교보문고, 1991.

정국용, 『현대 사주명리학』, 중문출판사, 대구, 2003.

조명언, 『상리철학』, 명문당, 1996.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행림출판사, 2003.

홍연표 편저, 『사주와 인생』, 선문대학교 출판부, 2010.

Ⅳ. 學位論文類

고효순, 『命理學과 老莊思想에 있어서 命에 대한 비교연구』, 경기대 대학원

-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동언, 『四柱命理를 12律呂에 適用하여 現代音律로의 解釋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1.
- 김동완, 『서양 상담 심리 이론과 사주명리학에 나타난 성격 진로 적성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1.
- 김장숙, 『命理學의 格局論에 관한 研究 『子平眞詮』의 透干會支論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효중, 『『子平三命通變淵源』의 격국이론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송부중, 『『淵海子平』 翻譯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신경수, 『당·송대 명리학 삼재론과 주체관점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강진, 『지구운동과 명리이론의 상관관계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이선중, 『사주로 본 직업적성과 적성검사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장영미, 『『子平眞詮』의 刑・沖・會・合論에 關한 研究』,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전정훈, 『『子平眞詮』의 相神에 관한 研究』,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조규문, 『『天綱 袁守成의 命理思想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沈揆喆, 『命理學의 淵源과 理論體系에 관한 研究』, 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學大學院
哲學博士學位論文, 2002.

V. 論文集

고해정, 『사주통변을 위한 궁성 연구』,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3.

김철화, 『사주명리와 질병의 발생 시기』,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1.

박청화, 『춘하추동과 인생』,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4, p.11.

조옥연, 『명리학의 정체성에 대한 소고』,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과
학술대회, 2013.

Abstract

Master's Thesis

A study on the Myeongri Theory of 『JaPyeongJinJeon』

Park, Byung Soo

Department of Eastern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 Arts

Kyonggi University

Today, Among shushu knowledge to predict the fate, Saju Myeongrihak is a representative study. Saju Myeongrihak is a theory to understand the human destiny that live in the 'now' 'here' in this world through the Yin-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y. Saju Myeongri is to seek happiness in real human life, not intended for afterlife. This means that Saju Myeongri have a realistic and humanitarianism.

Japyeongjinjeon Myeongri suggests a way to see the fate squarely logic. Japyeongjinjeon Myeongri a matter of Yongshin an important issue in Saju, Yongshin of borrowing, the Sangshin to assist Yongshin be focussed. And

examples are lacking, but clearly show how to interpret the saju a daily basis.

In this paper, I studied the fundamental concepts of logic Japyeongjinjeon of Saju Myeongri, Yongshin, Wolryung theory, Gyeonggukron.

This study is about the Gyeongguk of 8 Jungkyuk of Japyeongjinjeon been described, for example, with a description of the examples from Life Fortune (大運: Daeun) also, the Myeongri theory of Japyeongjinjeon studied in depth.

Japyeong Myeongri is Wolryung-based theory. Wolryung-based theory has Gyeonggukron, Joehuron, Oeokbubeop.

All theories are theories that are relevant Japyeong Myeongri. And in the past Myeongrihak have such a wide variety of Myeongri theory more deeply developed based on the theory Japyeong Myeongri are used efficiently in saju.

Japyeongjinjeon is among the literature of Japyeong Myeongrihak high viscosity, in many ways, but it does have some problems.

In particular, the contents of Japyeongjinjeon is lack a description of the conventional example, for example, is also part of this lack of accurate interpretation described.

Wolryung is only a Jegang Yongshin that can inadvertently fall into chaos, it better digestion and analysis can be explained in part novice scholars often very difficult to give an analysis. Therefore, JapyeongJinJeon is composed with easy access to difficult to study described.

In addition, this interpretation of Shu-Rakwo was causing the confusion of scholars interpret this by using arbitrarily interpret the saju.

The Shu, Rakwo's interpretation of the myeongrihak in his thinking and learning is the problem. Shu-Rakwo was interprets of fragmentary to Original Book as well as more freely deleted or attach.

In addition, Shu-Rakwo were named by randomly adding a section appendix, were ordinary people to misunderstand the glow of the Shim-Hyocheom.

The characteristics of Japyeonghak, first, there is the theory of a daily-based. Second, emphasized the Saengkeukjewha. Third, Wolryung is the Yongshin and Kyuk.

Japyeonghak is Junggwan, Jungin, Jungjae, shikshin is looking good, Pyeongwan, Sanggwan, Geopjae, Yangin to distinguish Hyungshin has explained many blessings. This is a well-documented features of Japyeong Myeongrihak a Japyeongjinjeon.

There Japyeongjinjeon is being Gyukguk, Yongshin, Daeun all three elements were equipped with a modern system of Ganmyeong Myeongrihak by adopting the evaluation. In addition, a systematic description JaPyeongJinJeon and eliminate the Shinsal the old Myeongri elements and organized several Japkyuk about the theory of JungGyeokkyuk.

It is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Japyeongjinjeon in Korea today is because 'Japyeongjinjeonpyeongju'. Some Myeongri Academy World is a side view underestimates the Japyeongjinjeon. However, you understand and use correctly the Japyeongjinjeon seen, so far as it can be seen that is excellent than any Myeongri Theory.

There is also any classic Myeongri Literature not perfect. It may be the author did not express both their knowledge of the sentence, it may be readers did not understand exactly what the author's meaning. However Obviously daily-based pillar of saju system is higher more accurate to describe the fact that destiny of the individual than Year-based Pillar of Saju system.

Given these points, the value of the Japyeong Myeongrihak may be accepted. Japyeong Myeongrihak of literature from a number of

'Japyeongjinjeon' is best described literature the functional aspects of Japyeong Myeongrihak.

Japyeongjinjeon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sense that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Myeongri Academy World From a practical dimension.